



한국외국어대학교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Global Leaders, Great Read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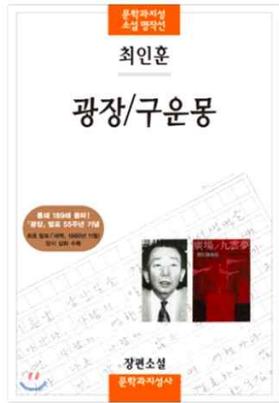
2025 정독상

독서감상문

수상작 모음



2025 선정도서 추천사



광장

저자 최인훈

출판사 문학과지성사

페이지 382 p.

작품은 변하지 않으나 읽는 이의 안목의 변화 때문에 다르게 해석되는 소설의 사례로 최인훈의 『광장』을 많이 이야기한다. 60여 년 전에 출간되어 이미 한국문학의 고전이 된 이 소설을 우리는 왜 다시 새롭게 읽어야 하는가? 작품 속 한반도의 생활 환경은 오늘날과 많이 다른가? 과거와 현재 여전히 결여되어 있고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는 것은 무엇인가? 시대를 통틀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절실히 요청되는 것은 무엇인가? 4.19혁명 직후처럼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한껏 피어난 오늘날 우리가 바라는 민주주의와 이상적 사회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를 『광장』을 읽으면서 다시 생각해 보자.

심사위원 조 준 래 미네르바교양대학 교수



디디의 우산

저자 황정은

출판사 창비

페이지 340 p.

대략 3백 쪽 분량의 이 작품은 「d」와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두 중편소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기 독립된 내용이지만 읽다 보면 두 작품이 묘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두 작품은 멀리는 1987년 6월 항쟁과 1996년 8월의 연세대 범민족대회에서부터 2009년 용산 철거민 참사, 2014년 세월호 참사, 2016년 박근혜 퇴진 범국민 항쟁과 탄핵 등 최근 한국 사회를 할퀴고 지나간 굵직한 정치, 사회적 이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혁명’이 서사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데도 소설의 분위기는 전혀 뜨겁지 않습니다. 차분하고 관조적입니다. 작품에서는 굵직한 명분에 가려 보이지 않았던 또 다른 의미의 파편들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은 물론 대학생들의 농활이나 탄핵 촉구 집회현장에까지 의문스럽게 묻어 있는 여성차별의 문제도 거론하는데 이 역시 하나의 별도 주제로 삼기에 부족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니체와 생텍쥐페리, 롤랑 바르트, 아우슈비츠, 아이히만, 슈테판 츠바이크의 이야기들, 국내외 신문과 서적의 인용구들이 중간중간 삽입되어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 국내와 국외의 여러 사건과 일화가 번갈아 가며 배치되어 있어 자칫 가독성이 떨어지는 듯한 느낌도 받을 수 있습니다만, 책장을 덮고 나면 왜 작가가 이와 같은 구성을 취했을까 고민도 해보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 소설에서 가장 인상 깊게 다가왔던 장면은 혁명도, 동성애도, 페미니즘도, 바르트나 아이히만도 아니었습니다. dd를 읽고 세운상가에서 택배 일을 하며 살아가는 d가 1983년 전투기를 몰고 남으로 귀순한 북한의 이용평 대위를 부러워하는 대목이었습니다. 자기가 속한 체제에 깊은 환멸을 느끼고 귀순했던 그 북한군 장교와 달리 d는 자신이 처한 환멸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그 어떤 수단도 또 “탈출하여 향해 갈 곳도 없다.”고 말하는 장면에서 명치끝이 저러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소설에서 마음에 와닿는 대목을 분명 한 두 곳은 발견할 수 있으리라 믿으며 황정은 작가의 『디디의 우산』을 추천합니다. 각자의 관점에서 편하고 자유롭게 독후감을 써 보기 바랍니다.

심사위원 전 용 갑 스페인어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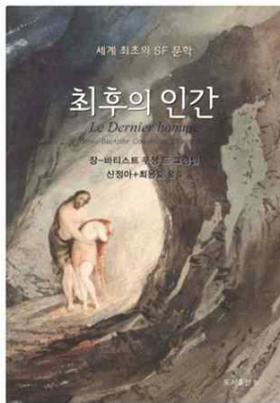
(진정성에서 프로필성으로)프로필 사회

저 자 Hans-Georg Moeller, Paul J. D'Ambrosio
출판사 생각이음
페이지 336 p.

오늘날 현대인들은 SNS를 통해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고 포장하고 전시하는 데 익숙합니다. 개인 영상물을 만들고, 사진을 찍어 개인의 소셜 미디어 계정에 올리고, 조회수, 좋아요, 댓글 등을 통해 타인의 반응을 확인하며,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게시물을 살피면서 반응하고 때로 괜찮은 게시물은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에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분명 예전과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프로필 사회』의 저자들에 따르면 디지털미디어 시대 우리의 정체성은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형성됩니다. 과거에 인간의 정체성이 진정성(자신에게 진실한)이나 성실성(자신의 역할에 충실한)에 의해 형성되었다면 오늘날 현대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프로필 큐레이팅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삶의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을 끼치는 이러한 ‘프로필성’의 작동 방식을 심도 있게 설명하는 이 책을 통해 소셜 미디어와 디지털 매체가 바꿔 놓은 여러분의 일상을, 더 나아가 여러분의 삶과 정체성을 비판적으로 돌아보고 성찰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심사위원 신 정 아 프랑스학과 교수



(최초의 SF문학)최후의 인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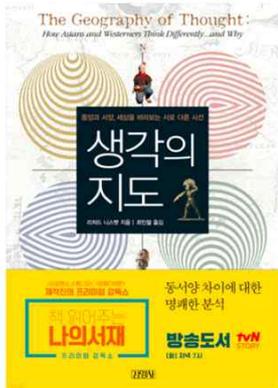
저 자 Jean-Baptiste Cousin de Grainville

출판사 b

페이지 336 p.

장바티스트 쿠쟁 드 그랭빌의 소설 『최후의 인간』에서 우리는 세상의 끝을 목도하는 인류 최후의 인간 오메가르를 만납니다. 오메가르 앞에는 두 개의 선택지가 놓여 있습니다. 신의 뜻에 따라 오메가를 찾아온 최초의 인간 아담의 요구대로 불행한 인류의 역사를 끝내고 지구의 종말을 앞당길 것인가? 아니면 지구의 정령의 말을 믿고 아내 시데리가 잉태한 아이를 낳음으로써 인류를 종속시키고 지구의 부활을 꿈꿀 것인가? 서구 문학사에서 최초로 등장한 ‘최후의 인간’의 고뇌에 찬 결정의 순간을 통해 독자는 오래전 세상을 떠난 프랑스의 무명의 작가가 남긴 메시지의 의미를 깨닫고, 오늘날 지구라는 행성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심사위원 신 정 아 프랑스학과 교수



생각의 지도

저자 Richard E. Nisbet 출판사 김영사
페이지 248 p.

『생각의 지도』는 심리학자 리처드 니스벳이 동양과 서양의 사고방식 차이를 치밀한 연구와 풍부한 사례로 밝혀낸 역작입니다. 대학 교육의 핵심이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데 있다면, 이 책은 그 성공적인 여정을 위한 나침반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이 책은 서양의 분석적이고 논리 중심적인 사고와 동양의 맥락과 관계를 중시하는 조화로운 사고에 대한 대비를 통해 동서양 문화 비교를 넘어선 사고의 다양성과 그 뿌리에 대한 깊은 성찰을 이끌어냅니다. 우리 자신이 당연하게 여겨온 사고 패턴을 재검토하고, 전혀 다른 사고 체계를 받아들이는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진정한 지성인이려면 다양한 학문 영역을 탐구하고,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사고의 폭을 확장해 나가야만 합니다. 『생각의 지도』는 다문화 사회와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자신과 타인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각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것입니다. 나아가 문화 간 소통의 핵심인 ‘사고방식의 차이’를 깊이 있게 탐구해야 하는 한국외대생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만족시키고 실질적인 통찰력을 키워줄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심사위원 김 상 현 세르비아·크로아티아어과 교수



“Global Leaders, Great Readers”

2025 정독상 독서감상문

최우수상 수상작

철학과 20 이준이



수상소감

최우수상



이준이
철학과 20

제작년에는 더 좋은 글로, 작년에는 더 ‘이준이’ 같은 글로 찾아뵙겠다고 수상소감을 남겼었는데, 이번에 더 ‘이준이’ 같으면서 더 좋은 글로 최우수상 수상소감을 남길 수 있어서 매우 기쁩니다. 졸업 전 마지막 도전이 이렇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저는 제대 후 복학을 하고 글쓰기에 대해 고민이 많았습니다. 나름대로 글을 좀 쓴다고 생각했지만, 아무리 제 글을 읽어도 그저 허울 좋은 단어 조합에 그친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증명을 위해 처음으로 도전했던 것이 23년도 정독상입니다. 당시 장려상을 수상했지만, 제 글쓰기에 대한 회의는 점점 커졌고, 어쩌면 앞선 위대한 거인들의 글에 각주나 달고 있는 제 글쓰기가 너무 초라해 보여서 자꾸만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럴 때 마다 이런 내 글이 진정으로 ‘이준이’ 다운 글이라고 생각하고 멈추지 않고 썼습니다. 제 글쓰기는 체중이 줄지 않는 다이어트와 같았습니다.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최대한 저 자신을 긍정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일상에서 사용하던 어휘나 묘사를 글에 담아보기도 했고, 평소에 쓰지 않던 개인적인 이야기도 써보기도 했습니다. 24년도 정독상에 제출했던 글은 그 과정 속에서 나온 ‘이준이’ 다운 글이었습니다. 다시 장려상을 수상하면서 저는 제 자신에게 어느 정도 확신 아닌 확신이 생겼습니다. 제 시각을 좋게, 재미있게 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 글을 쓸 이유를 주었습니다.

수상소감

이번 “너무 시끄러운 정체성”이라는 제목의 모티브는 아시다시피 보후밀 흐라발의 “너무 시끄러운 고독”에서 왔습니다. 시대의 영향을 받는 개인과 공적 생활과 사적 생활의 분리, 진정성이라는 제 글의 핵심적인 주제와 닿아있는 책입니다. 처음 읽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저에게 많은 화두를 던져주었고 글에 쓰지는 않았지만, “프로필 사회”를 넓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해준 책입니다. 글 속에 인용되는 한병철 선생님의 텍스트들 또한 저에게 시대를 성찰해 볼 수 있는 관점을 제공해 준 책들입니다. 어쩌면 저는 이 글의 첫 장에서 한병철 선생님을 흉내 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 또한 ‘이준이’ 아니겠습니까. 하하. 때로는 도서관에서 하염없이 시간을 보내면서 불안하기도 했고, 지루한 강의를 들으면서 짜증나기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많이 웃기도 했습니다. 대학의 모든 순간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고, 저는 지금의 저를 긍정하기 위해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제 글을 읽어주시는 모든 분들과 제 순간을 나눌 수 있어서 기쁘고 이런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음에 또 감사합니다.

이번 글은 이준이의 생각과 감정을 가감 없이 드러낸 글입니다. 졸업을 앞두고 제게 남아있는 것들과 일상의 생각들, 독서의 경험들을 솔직하게 적어내다 보니 분량을 훨씬 넘겨버려 결론 부분이 급하게 마무리한 감이 있지만, 그래도 그것 또한 지금의 ‘이준이’ 다운 글입니다. 글에서 제 소소한 불안과 분노가 느껴지길 바라며 다음에는 사회에서, 더 큰 세상에서 더 큰 ‘이준이’로 인사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시끄러운 정체성

202002725 이준이

“나는 거짓말쟁이다. 내게 있는 것은 터질 때까지 부풀리고, 내게 없는 것은 있는 것처럼 포장한다. 이렇게 연출된 나를 사람들은 좋아한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언제나 그랬듯, 아직 이루지 못한 목표들을 마치 이룬 것처럼 당당하게 말한다. 이 거짓말이 들통나면 사람들은 실망할 것이다. 하지만 괜찮다. 언젠가 나는 그렇게 될 거니까. 꼭 그렇게 될 거니까.”

-24년 5월 개인 블로그

곧 졸업이 다가온다. 수업은 줄었고 도서관에 앉아 있는 시간은 늘어났다. 도서관에 있는 시간은 늘었지만, 책 읽는 시간은 줄고 체스를 두는 시간이 늘었다. 앞으로 학교를 떠나면 어떤 공간이 나를 지탱해 줄지 불안하기만 하다. 한편으로 시간을 투자하는 만큼 늘지 않는 내 체스 실력이 원망스럽기만 하다. 물을 한 컵 마시고 책을 편다. 또 다른 생각들이 나를 반긴다. 책 속에는 항상 달가운 생각들만 있는 건 아니다. 최근 읽은 책들은 안 그래도 무서운 내 인상을 더 사납게 만든다. 『프로필 사회』도 그렇다. 때로는 문자로 옮겨 놓은 사실들이 자꾸만 인상을 찡그리게 만든다. 잠시 책을 덮고 유튜브를 켜다. 프리미엄 결제를 하지 않아 뜬 광고에서 잘생긴 남자가 우월한 표정을 지으며 나에게 이렇게 말한다.

“구독자 수가 자산이 되고, 좋아요가 돈이 되는 세상, 눈에 보이지 않게 언제부터 자산이 되었을까? 뭐... 세상이 그런 세상 아니겠어요? 실체를 의심할 시간은 끝났어, 시대는 이미 000”

책과 상관없는 가상화폐 광고일 뿐이지만, 나에게서는 하나의 메시지가 된다. 진짜 세상이 변한 것일까. 이제 ‘진짜’ 정체성을 이야기 할 수 없을 정도로 프로필이 전부인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일까. 그렇다면 자기 연출 없는 정체성은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 SNS를 하지 않고 종이책과 연필을 붙잡고 있는 나조차 ‘아날로그 보이’ 라는 자기 연출이 아닐까. 어쨌든 나는 위선으로 가득 찬 허풍쟁이가 아닐까. 아니, 애초에 ‘진짜’가 존재하기는 하는 걸까?

아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프로필성은 나의 일부일 뿐이라고 강하게 주장한다. 분명하게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세상을 다각

도에서 동시에 살아가고 있을 뿐이다. 지금 이 순간, 하나의 정체성을 긍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존재의 불안을 직격으로 맞아야 할 것이다. 거센 파도가 칠수록 우리는 더 강하게 중심을 잡아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이 글을 통해서 『프로필 사회』를 읽고 내 머릿속을 채운 시대와 진정성, 프로필에 대한 나의 짧은 생각을 공유하고자 한다. 비록 10페이지도 안 되는 짧은 글이지만, 이 글이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작은 빵이,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고운 소금이 되었으면 한다.

제설분분 : 중심을 잃은 시대

자명하게도 우리는 다양성의 시대에 살고 있다. “누구나 존중받아야 한다”라는 다양성의 원칙은 의심할 필요도 없이 지금 시대에 핵심 가치로 자리잡았다. 이는 2차 세계 대전의 종식과 함께 전체주의와 획일화의 위험, 그동안 억압당했던 주체들의 해방에서 등장한 포스트모더니즘의 정신이다.

하늘에 있던 ‘진리’는 추락하고, 지상의 ‘의견’이 이를 대신한다. 사람들을 묶어주던 ‘종교’는 힘을 잃고, 점점 사람들은 개인화되며, 이제 “성경은 왜 동성애를 죄악시하나”는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되었다. 나는 이 질문이 다양성이 종교적 진리를 뛰어넘는 시대의 상징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한다.

소수자는 존중받아야 마땅하고 이제 그들의 목소리는 우리에게 전해지기 시작했다. 전에는 알지 못했던 소수자들이 등장하고 점점 새로운 가치들에 익숙해진다. 점차 다양성은 범람하기 시작하며 우리에게 질문한다.

“Why not?”

단순한 이 한마디는 『피로사회』의 긍정성과 궤를 같이 한다. 한병철의 통찰처럼 이 시대의 긍정성은 개인을 자기 착취로 이끈다. 불가능이 없는 다양성은 계속해서 증식하고 우리는 그렇게 점점 존중에 익숙해졌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존중이라는 말의 의미가 변질되어 우리는 타인에 무관심해졌다.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말로 애써 포장하지만, 그 말의 속뜻은 존중보다는 무시이다. 어떻게 이 한마디 속에 서로 반대되는 뜻이 들어 있을 수 있는가. 사람들은 수 없이 등장하는 사건들에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기보다는 아예 이해를 포기하고 관심을 꺼버리는 것을 선택한다. 계속해서 범람하는 사건들을 모두 이해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맥락에서는 『지나치게 연결된

사회』의 초-연결 사회의 부작용도 한몫을 한다. 가브리엘의 주장처럼 우리는 기술에 발전에 따라 과도한 정보에 노출되고 쉽게 피로감을 느낀다. 진리는 하나지만, 다양성은 무한하다. 그렇게 다양성은 폭발한다.

‘폭발한 다양성’은 나와는 관계가 없다. 억압의 시대에도 세상은 다양했고 내가 알지 못했을 뿐이다. 같은 원리로 내가 신경을 끄기만 하면 그것들은 내 삶에 어떤 영향도 줄 수 없다. 하지만, 내가 원하지 않아도 ‘폭발한 다양성’은 스멀스멀 내 삶에 침투하기 시작한다. 갑자기 인어공주가 흑인이 되고 내가 플레이하던 게임 캐릭터는 동성애자가 된다. 내가 좋아하던 캐릭터들이 변했다는 사실이 불쾌하지만, 그들을 존중하지 못하는 태도는 잘못되었다는 가치 때문에 이해하려 노력한다. 흑여나 목소리를 내었다가는 사회로부터 어떤 가르침을 받을지 모른다. 이렇게 존중은 암묵적으로 이해를 강요하는 무기가 된다.

온갖 콘텐츠에 만연하는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과 정의할 수 없는 성 정체성, 창의적인 방식으로 등장하는 각종 극단주의까지. 이미 우리는 일상에서 다양성을 존중하기보다 ‘폭발한 다양성’에 눈살을 찌푸리는 것에 익숙해지고 있다. 개인적으로 24년 파리 올림픽의 개막식이 그 상징이라고 본다. 포스트모던 사상의 본진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의 개막식이 ‘**난잡하다**’가 아닌 ‘**프랑스답다**’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가 여기 있다.

그렇게 다양성이 핵심가치로 자리 잡고 우리는 중심을 잃었다. 점점 사회는 어떤 가치를 중심으로 삼을지 합의에 이르기 힘들어진다. 셀 수 없는 의견들이 분열한다. 서로는 이해를 포기하고 혐오하기 시작한다. 이 혼란은 개인의 불안까지 도달하게 된다. 한병철이 『불안사회』에서 말하듯 민주주의는 불안과는 양립할 수 없다. 불안은 신뢰를 무너뜨리고 불신은 곧 민주주의를 무너뜨린다. 다양성의 상징은 스스로를 잠식한다.

이제 다양성은 사회를 넘어서 개인의 정체성에도 침투한다. 사회가 아니라 개인의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있어서도 어떤 가치를 핵심으로 삼을지 혼란스럽다. 누구는 과정이 좋으면 결과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고, 누구는 결과만 좋으면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다. 너무 많은 가치가 등장하자 이미 가치관을 형성한 어른들도 가치관의 혼란을 겪는다. 어느새 미덕이었던 똑심은 고집이 되고 자신이 믿어왔던 가치들이 쉽게 부정 당한다. 또한 사회의 중심 가치도 계속해서 빠르게 변화한다.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도태될까봐 불안한 어른들은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아이들을 훈육하기보다 무관심으로 응답한다. 혼란은 불안을 낳고, 불안은 다시 혼란을 낳는다.

그래서 다른 누구보다 사상가들은 발 빠르게 포스트모던 사상이 죽여 버

린 ‘사물 자체’로, 잃어버린 근대의 절대주의로 돌아가려고 한다. 지금 철학의 최전선에 있는 현대 실재론 운동은 우리가 잃어버린 절대를 되찾으려 한다.

『프로필 사회』는 지금 우리가 직면한 정체성 혼란에 시대적 상징인 프로필을 끌고 온다. 즉, 앞서 말했던 다양성으로 인한 정체성의 혼란을 프로필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하고 하나의 정체성 개념을 다수의 프로필성으로 대체하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기존 정체성의 성실성과 진정성이라는 개념을 해체한다. 하지만, 이 시도는 기존 철학사의 이데아와 시물라크르의 구도를 전복하려했던 들뢰즈의 도전을 떠오르게 만든다. 원본인 이데아와 원본 없는 이미지인 시물라크르, 핵 정체성과 핵이 없는 프로필성, 하나와 다수, 개념부터 구도까지 이미지 논의를 정체성 논의로 재포장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프로필성의 관계들을 설명하기 위해 기 드보르의 스펙타클을 끌고 온 것조차 이미지 논의를 떠오르게 만든다. 니콜라스 루만의 체계 이론도 마찬가지다. 저자는 2차적인 것들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사회 이론마저 프로필성의 양분으로 삼는다. 한병철의 문장을 빌리자면 “경제 전략으로서 창의성은 동일한 것의 변주만을 허락한다. 완전한 타자에 접근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창의성에는 고통을 주는 단절의 부정성이 없다.” 즉, 내가 보는 『프로필 사회』는 자본주의적 창의성, 안전한 범위 안에서 새로운 것처럼 보이려는 책이다. 도전이 아닌 시도가 나름의 가치를 가질지 모르지만, 근대성에 대한 도전 정신은 사라지고 오로지 다양성 추구하고 성과 정신만 담은 시대의 산물은 달갑지 않다.

저자는 반복적으로 한병철을 인용하고 있음에도 한병철이 강조하는 사회가 불안과 피로로 가득한 이유는 다루지 않는다. 프로필성이 정체성을 대체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다. 그래서 나는 한병철의 텍스트로 프로필성을 읽고자 한다.

화호유구 : 브랜딩과 진정성

내가 이 책이 나온 21년에 이 책을 읽었다면 박수를 쳤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저자는 정체성을 형성하는 방법에서 프로필성이 진정성을 능가하는 위치에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가 프로필성이 번성하기에 적합한 다양성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고도로 다원화된 사회에서는 프로필성이 정체성을 드러내는 가장 유용한 기술이라는 의미다. 이런 사회에서는 성실성과 진정성이 잘 작동하지 않는다. 유연성이 적을뿐더러 자신의 다양한 모습을 충분히 드러내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85p)”

저자가 주목하는 부분은 유연성이다. “진정성이 기반이 되는 사회에서는 모든 이들이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거나 창조하길 바란다. (중략) 하지만, 이러한 페르소나는 모두 동일한 진정한 자아에 뿌리를 두고 있어야 한다.” 진정성은 프로필 사회에서 유연성을 떨어뜨리고 다각화된 자신을 보여주기 힘들다. 사람들 또한 프로필을 통한 효율적인 판단을 한다. 그래서 근본적인 자아를 향한 헌신이 효율적이지도, 신뢰받지도 않는다고 주장한다. 즉, 시대가 프로필성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저자도 진정성이 완전 부정될 수는 없다고 인정한다. 대신, 진정성의 형태가 진정성 있어 보이려는 프로필성으로 대체된다고 설명한다. 나는 이 진정성 있어 보이려는 프로필성을 ‘**브랜딩**’이라고 부르겠다. 그리고 이 **브랜딩**은 결코 진정성을 대체할 수 없다. **브랜딩**은 진정성처럼 다른 프로필들과의 차이를 추구한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 같은 독창성에 대한 강박은 자본주의 아래서 ‘**동일한 것들의 변주**’로 밖에 탄생하지 못한다. 성과사회에서는 실패에 대한 공포 때문에 모두가 비슷한 것을 반복하기 때문이다. 비슷한 프로필이 양산되고 결국, **브랜딩**은 낯설고 충격적인 타자성을 보이기보다 진정성 호소, 기존 상징의 짜깁기 수준에 머무르게 된다. 우리는 그걸 ‘**아류**’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렇게 **아류**가 생산되는 이유는 다양성 추구보다는 한병철이 말하는 **성과 강박**에 있다.

저자는 기존의 진정성이 원하는 진정한 나, 원본에 대한 강박이 점점 표준화되고 결국, 진정성이라는 상징에 머물러 차별성을 잃고 **브랜딩**으로 넘어간다고 주장하지만, 이 문제는 진정성이 아니라 **브랜딩** 차원에서 발생한다. 진정성이 있어 보이기 위한 상징을 이용하는 것은 **브랜딩**이지 기존의 진정성이 아니다. 진정성의 상징은 원본으로부터 나오고 그 원본은 현존성과 헤리티지를 가진다. **아류**들이 원본을 상징적으로 사용할수록 원본의 권력은 더욱 강화된다. 즉, **아류**가 양산될수록 원본의 독창성은 더욱 강조된다. 벤야민의 언어로는 원본의 아우라는 감소하지만, 사회적 영향력은 강해진다. 이렇게 진정성은 다양성의 시대에 더 강한 ‘**차이**’를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브랜딩**을 하는 것이고, 저자도 진정성을 완전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결국, 프로필성도 진정성의 **아류**로 존재한다.

또한 시대는 고도로 다양화되기만 한 것이 아니다. 동시에 고도로 전문화되었다. 전문화의 맥락을 따르자면 시대는 우리에게 그렇게 높은 유연함을 요구하지 않는다. 저자도 인정하듯, 사회적 역할이 서로 상호 연관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이 시대에 30살 물리학 박사가 동시에 전문적인 축구 선수로 활동할 일은 없다. 전문성에 따르자면 난잡한 프로필은 전문적이지 못한 사람에 지나지 않고, 신뢰성을 얻기도 힘들다. 전문성 앞에 **브랜딩**은 힘을 쓰지 못한다. 전문성은 증명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전문성에 있어서는 진정성과 성실성이 프로필성을 앞선다.

요컨대, 지금 다양성의 시대에서는 오히려 진정성과 성실성이 차별성이 되고, 경쟁력이 된다. 본래 다양성의 정신이 원하던 것은 각자가 진정한 자신으로 목소리를 내고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지, **‘브랜딩에 대한 강박’**으로 새로운 것처럼 보이는 프로필을 양산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프로필 양산의 원인은 다양성보다는 자본주의와 성과사회, 투명사회에 있다. 이런 문제가 다양성의 정신으로 곱해되고 정체성의 영역에서 논해져서는 안 된다.

저자가 인용하는 **“나 스스로 ‘대중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다’ 는 것을 증명하려 반대로 행동하고 있었다.”** 처럼 진정성은 외부에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 내부에서 정의되는 것이다. 하지만, 저자는 진정성의 시대가 우리에게 진정성을 강요하는 것부터 외부로부터 정의되는 자신이기 때문에 진정성이 역설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반면, 나는 우리가 이미 고유한 타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시도는 하나의 **‘나’** 라는 뿌리의 진정성에 부합한다고 본다. 오히려 외부로부터 요청받는 진정성은 **브랜딩**에 가까울 것이다. 세상 아래 같은 사람은 없다. 진정성의 시대가 아니더라도 모두는 이미 뿌리를 가지고 행위한다.

즉, 프로필성도 진정성으로부터의 시도이다. **‘그렇게 보이고 싶다’** 는 욕망의 반영이 프로필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아류**도 하나의 정체성이다. **아류**는 자연적인 것이며 또 하나의 타자성이다. 하지만, 원본 없는 **아류**는 존재할 수 없으며, 뿌리 없는 프로필성도 존재할 수 없다. 저자가 말하는 진정성을 흉내 내는 **브랜딩**조차 진정성에서 나온다.

저자는 진정성의 시대는 우리에게 진정성을 가지라는 의무감을 준다고 비판한다. 그럼 반대로 다양성의 시대는 우리에게 다양성을 가지라는 의무감을 준다. 저자의 주장은 단조로운 하나와 다수의 전복이기 때문에 시대정신과 차이를 만들지 못한다. 저자는 판지아양과 한병철에게 자신의 주장을 돌아보지 못한다고 비판하지만, 그 자신조차 **“패러다임이 성찰의 대상이 되는 수준에 이르렀다면 그 패러다임은 종말이 임박했음을 의미한다.”** 라는 한병철의

충고를 제대로 돌아보지 못한다.

이미 우리가 다양성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정체성까지 분화시켜야 할 이유는 없다. 사회가 우리에게 여러 가지 페르소나를 요구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나를 묶어주는 뿌리를 뽑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미 내가 무슨 일을 수행하고 있던 나는 나 자체로 고유하고 충분한 타자성을 지닌다. 그리고 그 고유한 타자성은 정체성의 뿌리에 있다. 사회의 혼란은 ‘무질서를 내포한 질서(Chaosmos)’ 이나, 개인 정체성의 혼란은 정체성 붕괴와 정신병, 불안으로 이어진다. 이는 개인에서 시작되어 사회의 신뢰 자체를 무너뜨리고 각종 혐오로, 극단으로 다양성 자체를 파괴한다. 따라서, 진정한 정체성은 다양성의 시대에 부합하는 더 큰 차이를 만드는 힘이자, 개인의 정체성을 지탱하는 기둥이지, 우리의 자아를 묶어두고 다양성을 막는 족쇄로만 읽혀서는 안 된다.

안여반석 : 편안한 나

“프로필은 자기표현을 위해 행해지는 자아 연출의 형태로 선택되고, 편집되는 것은 분명하다.(72p)”

뿌리를 인정하지 않는 프로필성은 자기 동일성을 주장하기 힘들다. 프로필성의 관점에서 고기 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나와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나, 체스 선수로 활동하는 내가 같은 정체성일 필요가 없거니와 같은 정체성에서 파생되었다고 주장할 이유도 없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렇게 주장한다.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아 사회적 시선에 전혀 영향받지 않는 자기 자신의 본래 모습이 있다는 생각, 달리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지 전혀 신경쓰지 않고 어떤 평판도 자만심도 갖지 않고 사회에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은, 자신의 이미지가 타인의 관찰을 통해서만 형성된다는 사실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보다 훨씬 더 오만하고 이기적인 태도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것은 거의 틀림없는 사실이다.(57p)”

어쩌면 겉보기의 시대에서 우리는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고, 실재와 실재의 관계가 아니라 관념과 관념의 관계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지 모른다. 하지만, 겉보기의 시대에도 우리의 삶은 가면무도회가 아니다. 누구에게나 가면을 벗고 서로를 얼굴로 마주해야 하는 순간은 찾아온다.

우리는 집에서 정체성의 뿌리를 느낄 수 있다. 저자는 페르소나, 사회적인 정체성이 프로필성이라고 제시하지만, 우리는 이미 이 사회적인 정체성의 의

복에 불과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나는 하와이안 셔츠와 쪼리를 사랑하지만, 시상식에 갈 때 하와이안 셔츠에 쪼리를 신지 않는다. 설사 내가 시상식에 정장에 구두를 신고 갔다고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와이안 셔츠와 쪼리를 사랑하고 정장과 구두는 불편한 의복일 뿐이다. 내게 맞지 않는 의복은 불편할 뿐더러 내 취향도 아니다.

나는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옷을 뺀 허물처럼 벗고 다 낡아 늘어진 옷을 입는다. 컴퓨터 앞에 앉아 방귀를 푹푹 꾸며 코딱지를 파거나 손톱을 물어뜯는다. 나는 집에서 편안함을 느낀다. 근무지에서 불편함과 피로함을 느끼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중심 정체성에서 떨어진 사회적 정체성에 해당하는 역할을 연출했기 때문이다. 이런 연출은 본래의 나와 괴리가 있다. 오히려 이 사회적 정체성이 사회로부터 특정 프로필로 구성될 것을 강요당한다. 즉, 프로필은 외부로부터 구조되고 집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은 나의 내부로부터 구조된다. 그렇다고 해서 정체성이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저 나에게서는 편안한 정체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프로필과 정체성의 괴리는 불편함을 통해 발견된다.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프로필 괴리는 연애 초기에서 찾을 수 있다. 누구나 자신이 호감을 느낀 상대에게는 호감을 사고 싶은 법이고, 상대가 좋아하는 취향에 맞게 자신을 연출하기 마련이다. 그런 연출된 나에게 상대도 호감을 느끼고 운명적인 만남이라는 착각까지 불러일으킨다. 하지만, 막상 연애가 지속될수록 연출된 나를 지속하는 것은 힘들다. 상대와 만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편안한 내가 꿈틀거린다. 연인은 연애가 장기화되면서 점차 가면을 벗고, 서로가 변했다는 생각을 가진다. 이게 익숙해져서 그런 것인지, 애인이 원래 그런 사람인 것인지 헷갈린다. 이는 나에게만 괴리를 가져오는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내가 알던 애인과 지금의 애인 사이의 괴리를 만든다.

다른 예시로, 직장 동료가 아는 선배에게 깍듯한 나와 친한 형들에게 “똥!”을 외치는 내가 있다고 하자. 프로필 사회에서 직장 동료가 아는 나와 친한 형들이 아는 나는 일치시킬 이유가 없지만, 어쨌든 같은 사람이다. 여기서도 괴리가 발생한다. 그럼 어떤 내가 진정한 나인가? 답은 뻔하다. 나의 “똥!” 선언은 외부로부터 강요를 받지 않는다. 내가 **브랜딩**하는 것은 프로필이지 정체성이 아니다!

프로필 괴리는 동시에 내부에서도 일어난다. 프로필성은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나를 연출함으로 하나의 정체성을 구성한다. 문제는 이 프로필에는 한계가 없다. 매일 100km을 달리고, 푸쉬업 1000번, 턱걸이 1000번을 하는 프로필도 전혀 문제가 없다. 프로필에는 중심이 없고, 그렇게 보일 수만 있

으면 충분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프로필이 나와 너무 멀리 떨어질수록 나는 괴리감을 느낀다. 프로필성은 프로필성끼리의 동일성을 주장할 필요가 없지만, 어쨌든 나는 괴리감을 느낀다. 프로필을 구성하는 과정에서도 기존의 프로필과 같은 나라고 주장할 이유가 없지만, 분명 최소한 나와는 연관성은 남겨둔다. 그 최소한의 일치로 프로필을 연결하지 않으면 나라고 주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점점 프로필과 나의 괴리감이 커지고 중심을 떠난 모험이 시작된다. 내가 프로필과 동일성을 주장하는 방법은 스스로를 더 채찍질해 연출한 프로필과 나를 일치시키는 방법이다. 이런 방법은 우리는 착취하고 탈진시킨다. 프로필을 연출하는 것은, ‘어떻게 보이고 싶은지’ 목표를 설정하는 것과 같다. 한 프로필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연출의 연출과 착취의 착취를 수반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적으로 이상화된 프로필만 공존하는 세계에서 우리는 심각하게 이상화된 프로필들을 만나게 된다. 그렇게 SNS 속 세상은 현실 세상과는 동떨어진 이상화된 천국이 되고 우리는 그 천국에서 또 박탈감을 느낀다. 이상화된 천국은 참여하는 개인에게 이상의 이상, 경쟁의 경쟁, 프로필의 프로필을 추구한다. 한병철은 「우울사회」에서 같은 문제에 대해 이미 통찰했다. “가상공간에서는 타자성과 타자의 저항성이 부족해진다.” 그 속에서 자아는 현실의 저항 없이, 다시 말해 타자의 원리와 저항의 원리를 떠나 자신을 무한히 확장하며, 결국 내가 경쟁하는 것은 무엇보다 자기 자신일 뿐이게 된다. 그렇게 스냅챗 이형증(Snapchat Dysmorphia) 같은 결과를 낳는다. 점점 가속화되는 이상의 수레바퀴에서 탈출하는 방법은 단 한가지다. 지금의 나와 프로필을 일치시키면 된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다수의 프로필성에는 중심인 내가 없다.

이어지는 한병철의 문장에서 ‘실재’를 ‘정체성’으로 바꾸면 다음과 같다. “정체성이 무엇보다도 그 저항성을 통해 존재감을 가진다면, 가상화와 디지털화의 과정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그러한 정체성을 지워나간다. 정체성은 두 가지 의미에서 우리를 붙잡는다. 즉 일을 중단시키고 저항하여 우리의 발목을 잡을 뿐만 아니라 기댈 수 있는 받침대로서 우리를 잡아주는 것이다.” 즉, 프로필이 비대해질수록 정체성을 지우려 하지만, 정체성은 프로필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고, 나를 하나로 연결하는 중심이다. 내가 누구인지는 타인의 관찰이 아니라 나로부터 정의된다.

무량세계 : 나의 세계

“정치적 삶을 산다는 것이 인간 존재의 가장 높은 가능성의 성취를 의미한다면, 노예처럼 자기 소유의 사적 장소를 갖지 못하고 산다는 것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님을 의미한다.”

-한나 아렌트

그렇다고 해서, 사적 영역에서의 정체성이 진정한 나라는 것은 아니다. 브랜딩이 아닌 진정성 차원에서 보자면, 편안함을 가지는 내가 더 나에게 익숙한 나라는 것이고 더 주도적인 나라는 뜻이다. 내가 좋아하는 초록색이 사람들의 의견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처럼, 내 중심이 되는 나의 속성들은 무수한 프로필들 사이에서 변하지 않는다. 취향처럼 말이다. 물론, 변화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변화 또한 긍정할 수 있어야 한다. 진정성에 차원에서 변화를 긍정하지 못하면 또 다시 브랜딩이 되어 버린다.

다양성의 시대는 우리에게 분화된 정체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오히려 성과 강박과 보편성이 우리에게 브랜딩을 요구한다. 다양성의 시대는 오히려 솔직한 나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존중하겠다는 것이 시대의 정신이다. 존중받기 위한 자기 편집은 필요하지 않다.

앞서 사회의 혼란을 부정적인 것처럼 묘사했지만, 사회의 혼란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재차 강조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에 치여 인위적으로 자신을 브랜딩할 필요는 없다. 나는 나대로 살아야 한다. 공적인 세계와 사적인 세계는 구분되지만, 나에게서는 나의 사적인 세계가 있는 것처럼, 나의 공적인 세계도 있다. 이 온 우주의 중심은 나다. 우리는 내 세계를 긍정해야 한다. 그러니 모두가, 모두의 세계를 긍정해야 한다.

존중으로 포장된 “그럴 수도 있지” 선언은 타자의 세계에 관심을 끄고 이해를 포기한다는, 혐오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 내 세계에 맞지 않는 타자를 이해하지 않으면 배척할 뿐이다. “그 누구도 혼자서는 지혜로울 수 없다”는 플라투스의 말처럼 우리는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면서 우리의 세계를 확장한다.

다양성의 시대에 연출된 프로필도 분명히 나다. 하지만, 저자의 주장처럼 연출된 내가 모든 나를 대변하지 않는다. 뿌리가 되는 정체성이 없는 것도 아니다. 우리에게서 변하지 않는 고유한 타자성이 있다. 이 시대에서 강조되어야 할 정신은 고유한 나를 연출하기 위해 스스로를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고유한 나를 긍정하고, 이미 고유한 타자도 스스로를 긍정할 수 있게 존중하는 것이다.



“Global Leaders, Great Readers”

2025 정독상 독서감상문

우수상 수상작

화학과 21 구 현 모



수상소감

우수상



구 현 모

화학과 21

교환학생을 준비하던 과정에서, 저는 동서양의 사고방식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물음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 리처드 니스벳의 『생각의 지도』를 읽었고, 이 글은 그 사유의 흐름을 따라가며 써 내려간 결과물이었습니다. 글을 쓰는 동안 저는 동양과 서양의 대비를 넘어, 인간의 사고 자체가 얼마나 다층적이고 열려 있는지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곧 미국으로 교환학생을 떠납니다.

낯선 환경에서의 생활이 주는 불안이 분명 있지만, 이 책을 통해 배운 것은 두려움을 붙잡기보다 낯섬을 향한 호기심을 선택하는 용기입니다. 제 글에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담겼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수상은 세계 사고를 확장하는 노력을 멈추지 말라는 격려로 느껴집니다. 공부와 교환학생 경험 속에서 다양한 관점들이 만나 새로운 이해로 이어지도록 꾸준히 탐구하겠습니다.

제 글을 읽고 공감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생각의 지도 위에 새로운 길'을 계속 그려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각의 지도 위에 새로운 길을 그리다

나는 내년에 미국으로 교환학생을 앞두고 있다. 한국에서 나 혼자 동양인 비율이 전체에서 1%에도 못 미치는 지역에 간다. 언어의 장벽은 차근차근 극복하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진짜 걱정은 그 너머에 있었다. 말이 통해도, 생각이 다르면 관계 맺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나는 언어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해결하고 싶었다. 동양인과 서양인의 사고방식은 다른가? 그렇다면 왜, 어떻게 다른 걸까? 그런 궁금증 속에서 이 책을 선택했다.

리처드 니스벳의 생각의 지도는 한 실험 심리학자가 인류의 사고방식이 결코 보편적이지 않음을 선언한 지적인 도발이었다. 이 책은 ‘인간은 모두 동일하게 생각한다’는 오랜 서양 중심의 보편주의적 믿음에 정면으로 도전하며, 동양(특히 중국)과 서양(특히 그리스)의 사고 체계가 근본적으로 다름을 실험적 증거로 제시했다. 니스벳은 원래 인지 과정의 보편성을 굳게 믿던 학자였지만, 그의 인식론적 전환은 심리학계에 문화적 맥락에 따라 인지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문화 상대주의적 시각을 도입한 출발점이 되었다. 그가 이러한 방향 전환과 문화적 차이를 인지과학에 도입한 것은 분명한 업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니스벳이 서양인을 ‘개별 사물을 분석하고 법칙으로 통제하려는 분석적 사고’로, 동양인을 ‘전체 맥락과 관계 속에서 조화를 추구하는 종합적 사고’로 규정한 이분법적 모델은 강력하지만 역사적 복잡성을 지나치게 단순화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그의 주장은 자신의 심리학적 모델을 뒷받침하기 위한 ‘선택적 역사 읽기’ 혹은 ‘사례 짜맞추기’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니스벳의 논리에 대한 비판은 그가 서양 문명과 동양 문명의 기원을 설명하기 위해 가져온 역사적 사례들이 실제 사료와 불일치하거나 과도한 일반화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시작한다.

니스벳이 놓친 역사들

이러한 한계는 특히 그가 선택한 역사적 사례들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 이제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근거들이 실제 역사적 사실과 어떻게 어긋나는지를 살펴보자.

첫째, 니스벳은 고대 그리스인들이 올림픽이 열릴 때 전쟁을 중지했다고 기술했으나, 이는 ‘성스러운 휴전(Olympic Truce)’이라는 제한적 규정에 불과했다. 실제로는 올림피아로 향하는 선수와 순례자들의 통행을 보장하는 정도의 협약이었고, 도시국가 간의 전쟁 자체는 계속되었다. 예컨대 기원전 420년 스

파르타는 엘리스 지역을 침공하여 휴전을 어기고, 그 대가로 올림픽 참가가 금지되었다. 그리스인들에게 ‘올림픽’과 ‘전쟁’은 동시에 공존할 수 있었다. 이런 사례들은 고대 그리스 사회가 니스벳이 묘사한 것처럼 ‘합리와 규칙의 문명’만은 아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실제의 그리스는 논쟁과 경쟁, 신성과 폭력이 복합적으로 얽힌 사회였으며, 이성의 질서와 인간의 본능이 끊임없이 충돌하던 공간이었다. 따라서 그리스 문명을 ‘분석적 사고의 원형’으로 단순화하는 것은, 살아있는 역사 대신 상징적 모델을 그려낸 것에 불과하다.

둘째, 그는 서양 문명의 기원을 그리스에 한정하며, 합리주의적 사고의 원류를 그곳에 두었다. 그러나 고고학과 과학사 연구에 따르면, 그리스 철학과 수학의 상당 부분은 이미 이집트와 바빌로니아의 지식 위에 세워졌다.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바빌로니아 점토판(기원전 1800년경)에 등장하며, 탈레스와 피타고라스 자신이 이집트에서 기하학과 천문학을 배웠다는 기록도 있다. 심지어 플라톤의 우주론 역시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교 세계관과 교류한 흔적이 있다. ‘이성의 탄생지로서의 그리스’는 실증적 사실이라기보다 서양이 스스로를 정당화하기 위해 만든 신화적 기원 담에 가깝다. 니스벳의 모델은 이런 복잡한 문화 교류의 현실을 무시하고, 서양의 합리주의를 자족적 발전의 결과로 묘사함으로써 역사적 다층성을 제거했다.

셋째, 동양의 사례 역시 과도한 일반화의 위험이 있다. 작가는 중국 사회가 논쟁을 위험 요소로 간주해, 백가쟁명 시대를 제외하면 공개적 이의 제기가 거의 없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는 중국 사상의 역사를 지나치게 단순화한 해석이다. 진한 이후 중앙집권적 권위가 강화되면서 정치적 논쟁이 제약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이 지적인 논쟁이 사라졌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송대의 주자와 육상산이 벌인 성리학 논쟁은 인간의 마음과 도덕, 세상을 인지하는 방식에 대한 철학적 토론이었다. 논쟁의 방식이 서양처럼 공개적 토론장이 아니라, 서신과 학문 공동체 내부의 정중한 대화로 이루어졌을 뿐이다. 따라서 중국은 논쟁이 없는 사회가 아니라, 논쟁의 방식이 서양과 달랐던 사회였다. 따라서 백가쟁명 이후 중국이 논쟁을 중시하지 않았다는 니스벳의 주장은, 일부 시기의 정치적 억압을 문화의 본질로 일반화한 축소 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중국 음악이 단선율이라는 점을 들어 중국인들이 일치를 좋아한다는 해석은 음악 형식만으로 사회 전반의 태도를 판단한다는 환원주의적 접근이다. 중국에는 강남사죽과 같은 동시 다중 선율이 결합된 음악 형태도 존재하며, 음악의 양식을 사회적 가치관과 연결 짓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 수학이 연산이나 대수학에서는 뛰어나면서도 기하학에서는

거의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는 주장 역시 과도한 일반화이다. 중국 수학은 실용적 응용에 치중하고 유클리드식 공리적 증명 중심의 체계적 기하학의 발전은 약했지만, 명대에 편찬된 지구산정법처럼 기하학적 문제를 대수적으로 해결한 사례도 존재한다. 이런 다양한 역사적 사료를 무시한 해석은 단순한 비교가 아니라, 심리학 모델을 강화하기 위한 서사적 장치로 사용되었을 여지가 크다. 결국 니스벳의 ‘그리스 vs 중국’ 구도는 인류 사고방식의 복잡다단한 지형을 단 두 개의 축으로 강제로 단순화한 셈이다. 현실의 문화는 연속적 스펙트럼 위에서 존재하며, 그 중심축 또한 니스벳이 말한 분석과 종합, 통제와 적응 같은 몇 가지 축으로만 설명되기 어렵다.

통제의 꿈과 합리주의의 내부 균열

니스벳이 묘사한 서양적 사고는 세계를 개별 요소로 분해하고 불변의 법칙으로 통제하려는 강한 열망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서양 합리주의의 극단은 버트런드 러셀의 시도에서 잘 드러난다. 러셀은 모든 수학을 순수한 논리적 공리로 환원하여 완전하고 무오류한 형식 체계를 세우고자 했다. 이는 니스벳이 정의한 서양의 분석적 사고의 궁극적 실현이었다. 그러나 이 ‘완벽한 통제의 꿈’은 쿠르트 괴델에 의해 내부에서 산산이 부서졌다. 괴델은 1931년 ‘불완전성 정리’를 통해, 충분히 복잡하고 일관된 형식 체계 안에는 그 체계 안에서 참이지만 증명할 수 없는 명제가 반드시 존재함을 보였다. 즉, 서양의 분석적 사고가 추구하던 완결성과 자족성은 이성 그 자체에 의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난 것이다.

이런 합리주의의 균열은 수학과 논리학을 넘어 문학과 철학에서도 반복되었다. 도스토옙스키는 ‘죄와 벌’에서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를 통해 이성적 사고의 끝을 보여준다. 그는 살인을 합리적으로 정당화하며, 인간의 삶을 계산 가능한 방정식처럼 다루려 하지만 결국 소냐와의 관계와 삶의 고통 앞에서 그 논리는 붕괴된다. 도스토옙스키는 그 순간을 ‘변증법을 넘어 삶이 도래했다’고 묘사한다. 그가 말하는 ‘삶’은 논리의 명료함이 아니라, 고통과 연민, 인간의 모순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이는 서양 합리주의만으로는 인간의 진실에 도달할 수 없음을 선언한 것이다.

니체 역시 같은 맥락에서 서구가 만들어낸 분절된 개인, 모든 관계에서 자신을 떼어낸 ‘저맥락적 자아’를 비판했다. 그에게 자아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타자와 세계 속에서 변화하는 힘의 흐름, 즉 관계 그 자체였다. 그의 ‘관계적 자아’ 개념은 동양의 유교적 조화와는 다르지만, 서양의 저맥락적 개인주의에서 고맥락적 관계주의로 이동한 철학적 사건이었다.

결국 도스토옙스키와 니체는 서양 내부에서 합리주의의 한계를 폭로하고, 그 바깥에서 새로운 인간 이해를 모색한 인물들이었다. 그들은 서양의 논리적 사고가 만들어낸 균열 속에서 오히려 동양적 사고가 중시하는 관계, 조화, 변화의 원리를 발견한 셈이다. 다시 말해, 이 두 인물의 등장은 니스벳이 말한 서양적 합리성이 스스로의 한계를 자각하고 그 틀을 넘어 인간적 전체성으로 회귀하려는 서양의 내적 진화의 징후라고 할 수 있다.

K-pop이 보여주는 것: 수렴이 아닌 혼종

니스벳은 책의 말미에서 세계화가 진행될수록 동서양의 인지적 차이는 점차 수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교류와 정보의 확산이 각 문화를 보편적 인지로 이끌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20여 년이 지난 지금, 현실은 그의 예측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 대표적인 증거가 바로 K-pop의 성공이다.

K-pop은 세계화의 결과가 ‘수렴’이 아니라 ‘혼종(Hybrid)’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다. 이 산업의 생산 구조는 철저히 서양식 분석적 체계 위에 세워져 있다. 시장 세분화, 팬 데이터 분석, 음원 성과 예측, 안무 동선의 최적화 등 모든 과정은 합리적이고 계산 가능한 알고리즘으로 작동한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집단의 조화’와 ‘감정적 연결성’이라는 동양적 가치가 놓여 있다. 아이돌 그룹은 개인의 천재성이 아니라, 팀 전체의 호흡과 균형 속에서 의미를 발휘한다. 제작자, 팬, 멤버 간의 유기적 피드백 구조는 서양적 분석 시스템 안에 동양의 관계적 사고가 녹아든 형태다. K-pop은 이처럼 통제와 적응, 분석과 조화가 충돌하지 않고 하나의 생태계 안에서 상호 작용한다.

얼핏 보면 니스벳이 말한 ‘수렴’과 ‘혼종’은 비슷한 말처럼 들릴 수 있다. 그러나 두 개념은 그 철학적 방향성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다. 니스벳의 수렴은 서로 다른 문화가 점차 조화를 이루며 하나의 안정된 균형점으로 향하는 정태적 통합을 뜻한다. 반면, 혼종은 서로 다른 문화가 완전히 녹아들지 않고 부딪히며, 그 긴장과 상호작용 속에서 새로운 형태로 계속 변화하는 동태적 공존이다. 니스벳의 수렴이 ‘통합’을 목표로 한다면, 혼종은 ‘진화’를 향한다.

K-pop의 구조가 바로 그 예다. 서양의 시스템적 효율성과 동양의 관계적 감수성이 결합했지만, 그 결과는 고정된 절충형 문화가 아니라 세대와 지역, 플랫폼에 따라 끊임없이 변형되는 유동적 생태계다. 이러한 지속적 변형성, 곧 ‘정착하지 않는 융합’이야말로 세계화의 실체이자, 니스벳이 예견한 수렴의 세계와 가장 다른 지점이다.

더 흥미로운 점은 혼종적 구조가 단순히 한국 문화 내부에 머무르지 않고 서양인들의 인지 구조 자체를 바꾸고 있다는 사실이다. 서구의 팬들은 이제 음악

을 상품이 아니라 관계적 경험으로 받아들인다. 팬 커뮤니티 내의 협력과 공동 창작, 상호 피드백은 개인 중심적 소비 패턴에서 맥락적 관계 중심의 참여로 변모시키고 있다. K-pop은 단순한 문화 수출이 아니라 인지 방식의 수출이며, 서양의 인지 구조 안에 동양적 감수성을 이식하는 인지적 실험이고 할 수 있다.

화학 실험실에서 본 동양과 서양

화학을 전공하는 관점에서, 니스벳의 분석과 종합의 이분법은 양자화학의 두 축인 하트리-폭(HF)과 밀도범함수 이론(DFT)의 관계로도 설명할 수 있다. 하트리-폭은 시스템 전체를 개별 전자의 파동함수로 분해하여 계산하며, 전체를 알기 위해 부분을 완벽히 계산하려 한다. 이는 복잡한 대상을 단위 요소로 쪼개어 통제하려는 서양적 환원주의의 전형이다. 반면 DFT는 개별 전자 대신 전체 시스템의 전자 밀도라는 하나의 장에서 성질을 추론한다. 이는 개별 항이 아니라 상호 의존적인 관계망 속에서 전체를 이해하려는 동양적 종합주의와 닮아 있다.

흥미로운 것은, 현대 화학자들이 결국 이 두 방법을 하나로 ‘혼합’했다는 사실이다. 오늘날 가장 널리 쓰이는 계산법 중 하나인 B3LYP는 하트리-폭의 논리적 정확성과 DFT의 전체적 효율성을 동시에 결합한다. 과학조차 어느 한쪽의 사고방식만으로 완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것은 인류 사고의 방향이 ‘수렴’이 아니라 ‘공진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재밌는 비유로 사용할 수 있다.

양안시를 넘어, 다안시의 시대로

리처드 니스벳의 생각의 지도는 인간의 사고가 결코 보편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실험적으로 드러낸 책이었다. 그는 문화라는 변수를 인지 연구에 도입함으로써, 인간은 모두 동일하게 생각한다는 서구 보편주의의 신화를 흔들었다. 이 지점에서 그의 업적은 분명하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분석은 지나치게 단단했다. 동양과 서양을 두 개의 대립 축으로 묶는 그의 사고는 세계의 복잡한 지도를 지나치게 간결한 선으로 그려버렸다. 그 결과, 그가 열어젖힌 세계의 다채로움이 다시 이분법적 도식 속으로 회귀하는 역설이 생겨났다.

하지만 니스벳의 오류는 실패라기보다, 인간 사고의 다음 단계를 예고한 징후로 볼 수 있다. 그의 ‘양안시(兩眼視)’적 사고 동양과 서양 두 시각으로 세계를 보는 능력은 분명히 20세기의 인식 전환을 이끌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두 개의 눈으로도 부족한 시대에 살고 있다. 세계는 더 이상 동양과 서양의 이분법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우리는 과학의 눈으로 분석하고, 예술의 눈으로 느

끼며, 타인의 눈으로 성찰한다. 이처럼 수많은 시선이 교차하는 다안시(多眼視)의 사고만이 복잡한 세계를 이해하는 최소한의 조건이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의 지도는 완성된 지도가 아니라, 우리가 그 위에 새로운 길을 덧그려야 하는 미완의 지도다. 내년 미국으로 교환학생을 떠나는 나는 이 책을 통해 ‘다르게 생각한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깨달았다. 그곳에서 만날 사람들은 나와 다른 언어, 다른 감정, 다른 맥락을 지녔을 것이다. 그러나 그 차이는 오히려 나를 더 입체적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결국 생각의 지도가 남긴 진정한 메시지는 하나다. 사고의 차이를 경계로 삼는 대신에 그것을 새로운 이해의 출발점으로 삼으라는 것. 서로 다른 문화와 관점이 맞닿는 그 지점에서 인간은 비로소 자신을 다시 발견한다. 니스벳이 시작한 질문을, 나는 미국에서 계속 이어가보려 한다.





“Global Leaders, Great Readers”

2025 정독상 독서감상문

우수상 수상작

일본어통번역학과 22

김민경



수상소감

우수상



김민경
일본어통번역학과 22

이번 정독상 우수상을 받게 되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프로필 사회”는 저에게 단순한 일상 독서 경험을 넘어,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사회를 스스로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온라인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보여주고 선택받아야 하는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책은 ‘프로필’이 곧 자아가 되어버린 현실을 날카롭게 짚어냈고, 저 또한 얼마나 많은 순간을 타인의 시선과 기준 속에서 살아왔는지 돌아보게 했습니다.

프로필과 사회를 관통해 현시대를 아우르는 이 책은 개개인이 어떤 사람으로 비추어지는지를 한번 더 통찰하게 됩니다. 학우분들은 어떤 시뮬라크르의 자아를 가지고 계신가요? 시뮬라크르의 자아가 편집된 나인지 본인 그 자체인지 그 간극을 생각하면 한편으로 소름이 돋기도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여러가지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점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드러내는 말투, 감정, 선택조차도 진짜 내면에서 나온 자발성이 아니라 이미 소비된 코드들을 재조합해낸 결과일 수 있다는 관찰이었습니다. 이 깨달음은 불편했지만, 동시에 그 불편함이 사고를 확장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2025 정독상
독서감상문 수상자

수상소감

독서를 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결국 '프로필'이 말하는 나와 실제의 나 사이에 균형을 찾는 것이 앞으로의 삶에서 중요한 과제라는 것이었습니다. 보여지는 모습만 공들인다고 해서 진짜 내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며, 그렇다고 완전히 외부의 평가를 무시할 수도 없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스스로의 기준을 세우는 일이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생각의 변화는 독서가 아니었다면 쉽게 경험하기 어려운 과정이었고, 이번 수상을 통해 그 배움이 더 의미 있게 남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에 점령당한 자아

202204386 김민경

나는 소위 말하는 도파민중독자다. 눈을 뜨면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본다. 카메라에 담긴 내 사진, 인스타그램에 올린 짧은 영상, 프로필 칸에 적어둔 문장들. 누군가에게는 시니컬하면서도 선망의 대상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거울 속의 나는 종종 무기력하고 불안하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근본적 물음보다 “나는 어떻게 보이고 있는가?”가 더 무겁게 다가오는 시대다. 이 책, 『프로필사회』는 바로 그 질문에 정면으로 응답한다.

한스 게오르크 뫼러와 폴 J. 담브로시오는 현대 사회가 더 이상 ‘진정성의 사회’가 아니라고 말한다.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외부에 제시된 프로필—SNS, 이력서, 포트폴리오—이 개인의 정체성과 사회적 가치를 결정하는 시대라는 것이다. 책장을 넘길수록 나는 낮은 공포와 묘한 안도감을 동시에 느꼈다. ‘가짜 나’에 대한 불안과, 그것이 어찌면 이 시대의 새로운 정직함일지도 모른다는 묘한 위안이었다. 하물며, 업데이트된 카카오톡 프로필마저 남들의 시선을 더 의식하게 만드는 오늘, 덕분에 흥미롭게 책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

『프로필사회』는 단순한 사회 비평서가 아니다. 이 책은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누구로 존재하고, 어떻게 보여지며, 왜 그렇게 살아가는지를 깊이 있게 질문한다. 나는 이 감상문을 통해 이 책의 핵심 개념을 풀어가며, 경제, 문화, 그리고 나 자신이라는 ‘개인적 사례’에 이 개념들을 비추어보고자 한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고 싶다.

“나는 진짜 나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프로필로 완성된 나로 살고 있는가?”

1. 진정성있게 살아라!

‘진정성’이라는 말은 정말 우리를 자유롭게 했을까? 아니면 또 다른 규범이자 짐이었을까? 『프로필사회』는 바로 이 질문을 던지기 위해 ‘진정성의 시대’를 출발점으로 삼는다. 윌러와 담브로시오는 현대의 ‘프로필성’ 개념을 제시하기에 앞서, 근대 이후 인간 사회가 어떻게 ‘내면’의 진실에 중심을 두며 정체성을 구성해 왔는지를 조망한다. 그리고 그 흐름의 철학적 기초로 하이데거를 언급한다.

독일 철학자 하이데거(Martin Heidegger)는 『존재와 시간』에서 인간 존재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진정성(authenticity)’을 강조한다. 하이데거에 따르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타인의 시선과 기대에 휘둘리며 살아가는데, 이는 곧 ‘비진정성(unauthenticity)’의 상태다. 반면, 진정한 인간 존재란, 타인의 기대가 아닌 자신의 죽음을 향해 책임 있게 나아가는 존재, 즉 ‘스스로 선택한 삶을 살아가는 자’라고 본다. 그는 우리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서 벗어나 “깨어 있는 존재”로서 살아가는 때에만 비로소 ‘실존적인 진정성’에 다가갈 수 있다고 말한다. 즉, 진정성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철학적이고 실존적인 윤리적 결단이었다.

이러한 철학적 개념은 곧 사회 전반의 가치관으로 번역되었다. 20세기 후반, 서구 사회는 ‘내면의 진실한 자아’를 찾는 것을 중요한 미덕으로 삼았다. 심리학은 인간의 무의식과 감정을 탐색하는 학문으로 각광받았고, 대중문화는 “Be yourself”, “진짜 너의 이야기를 해”라고 외쳤다. 특히 록 음악과 언더그라운드 문화는 체제와 위선을 거부하며 ‘있는 그대로의 나’, 꾸밈없는 감정을 찬양했다. 1990년대의 광고들조차 ‘너 자신에게 솔직하라’, ‘자연스러운 것이 아름답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그 시절, 진정성은 해방과 자유, 저항과 개성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프로필사회』는 이러한 진정성의 시대에도 역설적인 그림자가 있었다고 지적한다. ‘진짜 나를 찾아야 한다’는 명령이 어느 순간 ‘진짜 나가 되지 않으면 실패한 삶’이라는 압박으로 변질된 것이다. 특별해야 하고, 독특해야 하며, 진심을 드러낼 줄 알아야 하는 시대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내면을 탐색하라는 요구에 시달리게 되었다. 어떤 이는 자신이 ‘진짜 나’를 못 찾는다라는 이유로 우울감에 빠지기도 했다. 결국, 진정성은 또 하나의 사회적 규율이 되었고, 자유의 약속은 곧 불안의 씨앗이 되었다.

필러와 담브로시오는 이 점을 날카롭게 역설한다. 진정성은 더 이상 현대인의 정체성을 설명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인간은 내면보다 외면, 자기 자신보다 타인의 인정을 통해 정체성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2. 프로필성의 등장 - “진짜 나” 는 어디로 갔을까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너무나 익숙한 풍경을 만난다. 누군가의 셀카, 공부 브이로그, 여행 사진, ‘TMI’ 처럼 꾸민 자기소개, 하루치 감정을 요약한 글귀. 모든 사람이 바빠보이지만 진짜 바쁜 사람은 SNS 를 하지 않는 것처럼, 사회망 속에는 진짜 사람이 있다기보다 잘 만들어진 사람이 있다. 『프로필사회』의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내면의 진실한 자아’ 로서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정체성을 형성하는 ‘프로필성(profilicity)’ 의 시대에 살고 있다.

저자 필러와 담브로시오는 ‘프로필성’ 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프로필성은 타인의 시선 속에서 자아가 구성되고, 제 3자 관찰자의 인정을 통해 자신의 존재가 증명되는 상태이다.” 이 개념은 단순히 ‘보여주기식 삶’ 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디지털 기술, 알고리즘, 대중 평가 시스템이 결합된 새로운 자아 구조를 의미한다.

예전에는 부모, 친구, 가까운 사회 구성원과의 관계에서 자아가 형성되었다면, 지금은 유튜브 댓글, 인스타그램 좋아요 수, 링크드인의 연결 네트워크 등 무수한 불특정 다수의 시선 속에서 나를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심지어는 가까운 사회구성원과의 관계존속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에게 진술한 이야기를 꺼내기도 한다.

프로필성은 결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다. 우리는 매일 이 구조 안에서 산다. SNS, 이력서, 포트폴리오, 소개팅 앱, 심지어 카카오톡 프로필까지—모두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기 위한 플랫폼’ 이다. 그리고 이 플랫폼 위의 나는 단지 사실이 아니라, 연출된 인상으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보자. 우리는 자기소개서에서 ‘책임감이 강하고 소통에 능한 사람’ 이라고 쓰지만, 그것이 실제 나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 프로필이 얼마나 ‘믿을 만하게 보이는가’, 얼마나 잘 팔리는가다. 본인을 마케팅하고 브랜딩할수록 수익창출이 나는 오늘날, SNS 에서는 “보통 사람” 처럼 보여야 하면서도 “특별해 보여야” 한다. 자연스러운 듯하지만 세련된, 노력한 티는 나뉘 부담스럽지 않은... 이 모든 정체성 전략이 프로필의 핵심이다. 우리는 이제 ‘실제 나’ 가 아니라 ‘설득력 있는 나’ 를 구성하며 살아간다.

진정성의 시대가 “나의 내면이 중요하다” 고 믿었다면, 프로필성은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 는 믿음 위에 작동한다. 그리고 이 차이는 단순한 취향이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존재하는 방식 자체의 변화다.

진정성은 ‘1 인칭 시점’, 즉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심이었다. 반면, 프로필성은 ‘3 인칭 시점’, 즉 ‘그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가 자아의 기준이 된다. 이러한 프로필성의 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제 3 자 관찰자의 인정’ 이다. 여기서 ‘제 3 자’ 란 구체적인 누군가가 아니다. 팔로워, 구독자, 심사위원, 회사 인사담당자, 유튜브 알고리즘처럼, 불특정 다수의 평가 체계를 말한다.

우리는 이들의 기준에 맞춰 자아를 꾸민다. 단지 인기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다. 존재의 증명, 사회적 생존, 관계의 유지가 모두 여기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은 단순한 연출이 아닌 사회적 생존 전략이다.

더불어, 프로필성의 세계에서는 자아가 절대 고정되지 않는다. 나는 매일 프로필을 편집하고 갱신하고 재정비한다. 인스타 피드를 정리하고, 자기소개서를 수정하고, 이력서 항목을 추가한다. 이 자아는 한 번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다시 쓰이는 존재다. 진정성이 ‘발견되는 것’ 이라면, 프로필은 ‘설계되는 것’ 이다. 자아는 편집된다.

3. 우리는 물건이 아니라 브랜드의 이미지를 산다

경제 영역에서도 ‘프로필성’은 강력하게 작동한다. 우리는 더 이상 단순히 물건을 구매하지 않는다. 그 물건이 만들어내는 ‘이미지’와 ‘서사’를 함께 소비한다.

예컨대 ‘런던베이글뮤지엄’을 생각해보자. 이곳은 베이글을 파는 빵집이지만, 사람들은 단지 베이글이 먹고 싶어서 그곳을 찾는 게 아니다. ‘런던 베이글뮤지엄’을 웨이팅하면서 방문하고 SNS에 올리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들은 베이글을 사는 경험, 감각적인 인테리어, "여기 나도 다녀왔어"라고 인증할 수 있는 사진 한 장을 소비한다.

런던베이글뮤지엄은 하나의 맛있는 음식점이 아니라, SNS 속 잘 꾸며진 라이프스타일의 일부가 되기를 바라는 ‘이미지 플랫폼’이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줄 서서 30분을 기다려도, 그 한 컷을 위해 기꺼이 시간을 투자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베이글의 맛이 아니라, 그 베이글을 통해 나라는 사람의 ‘취향’을 보여줄 수 있느냐는 것이다.

스타벅스 커피가 비싸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다. 하지만 그 비싼 커피를 사면서 사람들은 종이컵에 붙은 로고를 소중하게 여긴다. 왜일까? 제품의 품질보다 브랜드 이미지가 더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제 상품이 아니라 ‘상품의 프로필’을 소비하고 있다. 애플 제품을 사는 이유도 비슷하다. 기술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을 어떤 프로필로 보여주는지가 중요하다. 아이폰의 카메라 화질보다도, “이걸 들고 있는 나”의 이미지가 어떤가가 더 중요한 것이다.

사람들 스스로도 ‘자기 자신의 브랜드’가 되길 원한다. 인플루언서가 되기 위해, 취업에 유리한 프로필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팔리는 나’, ‘보여줄 만한 나’를 디자인한다. 경제적 주체로서의 인간도, 이제는 가치를 생산하는 노동자이기보다, 프로필을 구축하는 마케터에 더 가깝다.

오늘날의 자기계발은 더 이상 ‘내면의 성장’이 아니라, ‘외부에 인식되는 모습’을 위한 것이다. 우리는 책을 읽고 운동을 하고 외국어를 배우면서

도, 그 행위 자체보다 그것이 ‘어떻게 기록되고 보여질 수 있는가’ 를 먼저 고민한다. 알고리즘에 최적화된 삶, 좋아요를 부르는 피드, 추천 시스템 속에서 매력적으로 포지셔닝되는 나. 결국 우리는 자기 자신을 ‘팔리는 콘텐츠’ 처럼 관리하며 살아간다.

4. 우리는 서로의 진짜 얼굴을 만나지 않는다

사람을 만날 때조차 우리는 먼저 프로필을 확인한다. 소개팅 앱에서는 상대방의 직업, 학벌, 취미를 몇 줄 안에 담아놓은 정보를 읽고 만나기를 결정한다. 심지어 친구를 사귄 때도 SNS 피드나 카카오톡 프로필, 인스타그램 하이라이트로 그 사람의 인상을 파악한다.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직접 겪기 전에, 이미 ‘편집된 자아’ 를 통해 선입견을 만든다. 관계는 점점 더 얇고 빠르게 맺어지고, 진심보다는 인상과 호감도, 그리고 외부에 ‘어떻게 보일지’ 에 따라 작동한다.

가령, 연애를 해도 “우리 커플 사진은 왜 안 올려?” 라는 질문이 관계의 진심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재는 왜 맨날 댓글 안 달아줘?” 같은 디지털 반응이 진심의 척도가 된다. 진정한 교감보다 ‘프로필 상의 반응’ 이 더 관계의 기준이 되는 시대, 그것이 오늘날의 모습이다.

이런 구조 속에서 우리는 타인을 이해하려 하기보다, ‘프로필이 줄 수 있는 정보만으로 판단’ 하는 데 익숙해진다. 누군가를 천천히 알아가는 과정은 줄어들고, 첫인상의 이미지가 모든 것을 결정해버리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관계는 쉽게 맺어지지만 쉽게 끊어지며, 진심이 작동할 틈은 점점 더 좁아진다. 우리는 자꾸만 관계의 밀도가 아니라, 관계의 가시성과 편집 가능성에만 집중하게 된다.

5. 기회의 확장인가, 진정성의 종말인가

『프로필사회』를 읽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이 책이 프로필성에 대해 일방적인 비판만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였다. 필러와 담브로시오는 프로필성이 단지 ‘거짓 자아’ 의 부상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그것이 어떻게 새로운 정체성의 조건이 되었는지를 파고든다. 그렇다면 우리는 프로필성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먼저, 분명한 건 프로필성이 우리에게 이전에는 없던 기회를 열어주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누군가에게 선택받거나, 주어진 자리에서만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누구나 자기 자신을 ‘연출할 수 있는 무대’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즉, 프로필은 때로 내가 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기도 하다. 진정성이 ‘내면의 진실’을 요구했다면, 프로필성은 현실의 역동성을 기반으로 한 ‘연출된 진실’을 제안한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성은 곧 다른 이름의 고통이 되기도 한다. 무대가 늘어난 만큼, 평가의 시선도 늘어났기 때문이다. 누구나 자신의 브랜드를 만들어야 하고, 언제 어디서든 “괜찮은 사람” 처럼 보이기 위한 노력을 멈출 수 없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보여주기 위한 삶”에 몰두하게 되고, ‘내가 누구인지’보다 ‘내가 잘 팔릴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해진다. 그 결과, 자존감은 점점 외부 평가의 인질이 되어간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프로필성의 사회를 살아가야 할까? 스스로에게 솔직하면서도,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이 세계에서 나는 어떻게 무너지지 않으면서, 꾸며진 나에게 완전히 잠식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

6. 개인적성찰

『프로필사회』를 읽고 난 뒤, 나는 스스로에게 낯선 질문을 던졌다. 이진진짜 ‘나’ 인가? 아니면 누군가에게 “괜찮아 보이는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만들어낸 프로필로서의 나인가?

나는 일본어통번역학과를 전공하는 대학생이다. SNS 속 나는 부지런하다. 패밀리레스토랑 알바를 병행하면서도 학교 수업 자료를 예쁘게 정리하며,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긴다. 햇살 좋은 창가 자리에서 찍은 사진 한 장은 마치 내가 모든 일상을 여유롭게 살아가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

하지만 현실의 나는 그 모습 사이사이에서 자주 멈춘다. 아무도 보지 않는 아침의 나는, 3분 만에 츄리닝을 주워 입고, 가벼운 얼굴로 버스를 타며 학교에 간다. SNS 속 프로필은 내가 좋아하는 ‘공주 코어’ 스타일을 정성껏 담고 있지만, 정작 내가 그 옷을 입는 날보다 그 옷을 좋아한다고 ‘보이는’ 날이 더 많다.

내 삶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증명하기 위한 하루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 나는 ‘잘 꾸민 나’와 ‘그냥 살아가는 나’ 사이에서 끊임없이 흔들린다. 어느 쪽이 진짜 나인지 혼란스러울 때도 있지만, 확실한 건 둘 다 내가 만든 이미지라는 사실이다. 하나는 살아내는 나이고, 하나는 보여주는 나다.

“나는 언제 진짜 내가 되었던가?”

이 책을 읽으며 나는 문득 몇 번의 순간을 떠올렸다. 누군가와 교류하지 않고 혼자 일기와 소통하는 나, 자정이 넘은 시간, 방 안에서 홀로 평평 울면서 스스로의 불안과 마주했던 날들, 후회 속에서 나를 위로했던 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좋아서 무언가에 몰입했던 시간들...

그 순간의 나는 누구에게도 보여주기 위한 사람이 아니었다. 좋아요도 없고, 아무런 연출도 없었다. 그때 나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진짜 나’로 존재하고 있었다. 나는 이제 안다. 진짜 나와 프로필로서의 나 사이에는 분명 간극이 있다. 그러나 그 간극은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사이를 오가며 나는 매일 ‘의미 있는 나’를 조금씩 만들어가고 있다. 그것이 오늘날, ‘프로필 사회’를 살아가는 나의 방식이다.

7. 무대 위의 자아, 시뮬라크르의 자아

고프먼은 인간을 ‘무대 위의 배우’로 보았다. 우리는 일상 속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을 연기하고, 그 연기가 성공하려면 타인에게 주는 인상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한다. 『프로필사회』는 고프먼의 ‘연극론적 자아’를 디지털 공간에서 새롭게 재구성한 결과물이다. 우리는 단지 ‘역할’을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SNS라는 무대에서 끊임없이 편집된 프로필을 설계한다.

더 이상 순간적인 연기 수준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아카이빙되는 자아의 박제인 셈이다. 이제 자아는 순간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전시되고 축적되며, 타인의 시선 속에서 생명력을 갖는 일종의 브랜드로 진화했다.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에서 ‘진정한 존재’란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그에 따라 삶을 스스로 선택하는 존재라고 보았다. 반면, 세인(世人, das Man)은 타인의 시선과 사회적 관습에 끌려다니는 비진정한 존재다. 『프로필사회』는 이 세인의 시선을 알고리즘과 ‘좋아요’로 구현된 디지털 감시체계로 읽는다. 하이데거의 세인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다. 그것은 데이터화된 시선, 확률화된 평가, 집단의 인상 속 평균치로 변형되었다.

보드리야르는 현대 사회를 ‘시물라크르(simulacre)’의 시대라고 불렀다. 사람들은 실재보다 더 자극적인 이미지, 가짜 같지만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보이는 것을 욕망하게 된다. 『프로필사회』는 바로 이 시물라크르 개념과 절묘하게 맞닿는다. 우리는 누군가의 삶을 그 사람이 아닌, 그 사람의 ‘잘 만든 프로필’을 통해 소비한다. 그 프로필은 가짜일 수도 있고, 극히 일부일 수도 있지만, 타인에게는 그것이 전부가 된다.

인스타그램 속 여행 사진은 피곤한 일정 뒤의 한 컷을, 이력서 속 ‘열정적 인재’는 불면의 밤을 편집하고, 감추고, 재구성한 시물라크르다. 우리는 더 이상 현실 속 타인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잘 연출된 시물라크르와 관계를 맺는다. 자아는 더 이상 하나의 실체가 아니다. 그것은 고프먼의 무대 위에서 연기되고, 하이데거의 세인 속에서 흔들리고, 보드리야르의 시물라크르로 포장된 채 살아간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자아를 ‘좋아요’로 판단한다.

8. 진짜 나와 잘 만든 나 사이에서

책을 덮은 후에도 한동안 휴대폰을 들여다보지 못했다. 어느새 그 안에 가득 저장된 것은 나의 삶이 아니라, ‘잘 편집된 김민경’이라는 프로필이었다. 『프로필사회』는 내게 한 가지 확실한 것을 알려주었다. 진정성과 프로

필성은 어느 하나가 옳거나 틀린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자아의 두 얼굴이라는 점이다.

우리는 진짜 나로만 살아갈 수는 없다. 세상은 나에게 끊임없이 설득력 있는 이미지를 요구한다. 그러나 우리는 프로필로만도 살아갈 수 없다. 이미지만으로는 나를 위로할 수 없고, 편집된 자아로는 깊은 관계도, 자기 존중도 쌓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이제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는다.

“내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건 살아남기 위한 연기인가, 아니면 나의 일부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이 순간만큼은 누구에게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솔직해지고자 하는 ‘진짜 나’에 가까워진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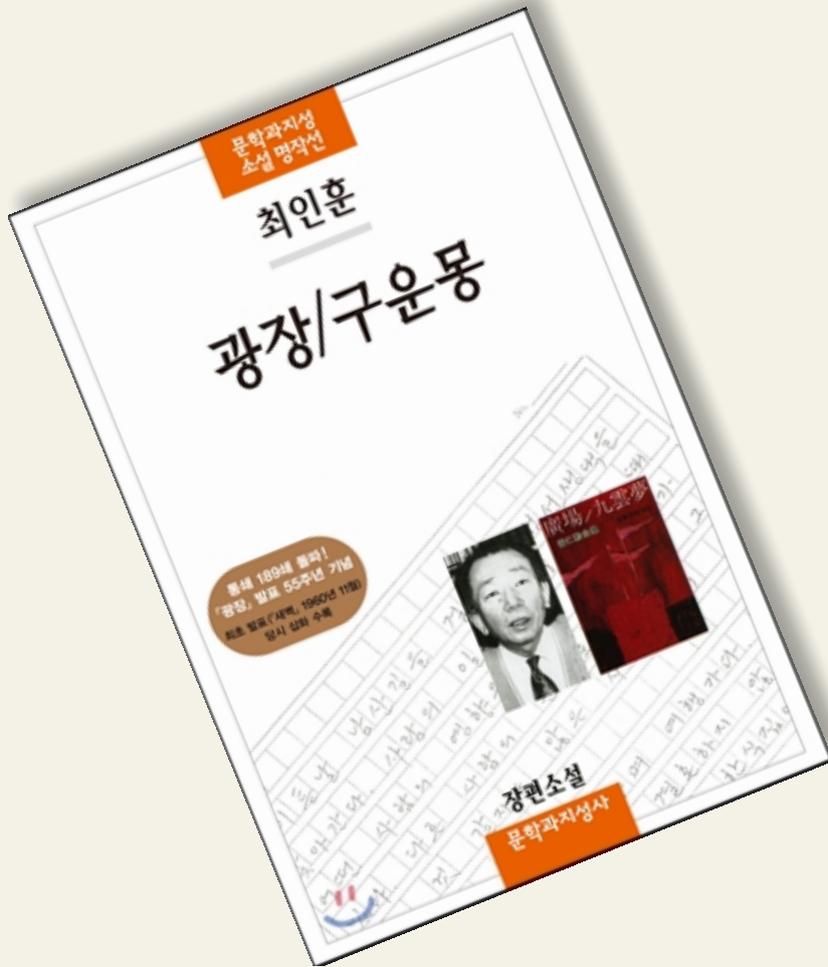
나는 이제, 진짜보다 잘 만들어진 내가 되었다. 그러나 나는 잘 만들어진 나를 통해 진짜 나를 이해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 프로필은 허상이 아니라, 현대인이 진짜 자아를 찾기 위해 거쳐야 할 통로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진정성만으로 살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프로필이 모두 거짓이거나 가짜일 필요는 없다. 오히려 프로필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드러내는 ‘의지의 형태’ 일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의지를 반복해서 연기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것이 나의 일부가 되기도 한다.

『프로필사회』는 단지 SNS의 문제를 말하는 책이 아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보여지기를 원하는가, 그리고 왜 그런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철학적 거울이다. 그 거울 앞에서 나는 내가 얼마나 많은 프로필을 걸치고 있는지를,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모습은 정말 내 것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조금은 인정하게 되었다. 잘 만들어진 나를 부정하지 않되, 그 안에 숨은 진짜 나를 잊지 않겠다는 다짐. 그것이 이 책이 내게 남긴 가장 큰 울림이다.

“모든 인간은 하나의 무대 위에 선 배우이며, 세상은 무대다.”

— William Shakespeare



“Global Leaders, Great Readers”

2025 정독상 독서감상문

장려상 수상작

영어통번역학부 22

함성규



수상소감

장려상



함 성 규
영어통번역학부 22

이번 공모전에 응모한 글에 상을 주신 심사위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 편의 독서감상문이 누군가에게 닿아 뜻깊은 자리에 실린다는 사실이 여전히 낯설고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상은 기쁨과 더불어, 글을 쓴다는 행위가 품어야 할 책임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광장』을 읽으며 제가 오래 붙든 질문은 단순했습니다.

사람은 어디에서 사람으로 설 수 있는가. 작품 속 현실은 과거를 지나 오늘의 사회로 이어져 있었고, 말이 숨 쉬고 다름을 받아낼 광장은 어떻게 마련되어야 하는가라는 물음은 지금도 유효했습니다. 그 앞에서 제가 한 일은 조금 더 천천히 바라보고 생각하는 일이었습니다.

글을 쓰는 과정은 빠른 결론보다 망설임을 인정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문장을 다듬으며 확신보다 의심이 더 소중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독서는 완성된 답을 찾기보다 자신의 삶과 시대를 비춰보는 일이라는 사실도 다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상은 성취라기보다는 계속해서 질문을 잃지 말라는 격려처럼 느껴집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책 속에서 생각의 폭을 넓히고 다른 목소리를 주저 없이 경청하고 싶습니다. 제가 쓰는 문장이 누군가에게 작은 힘이 되기를 바라며, 꾸준함을 잃지 않고 정직하게 배우겠습니다. 따뜻한 응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설 수 있는 자리

함 성 규

『광장』 (최인훈, 1960)

바다는 멀리서 더 짙게 빛난다. 인도행 선박 ‘타고르호’ 난간에 기대어 선 이명준이 내려다보는 물결의 비늘은, 선택하지 못한 세계들이 서로의 그림자를 부딪쳐 깨뜨리는 소리처럼 반짝인다. 나는 이 소설을 덮고도 한동안 그 반짝임을 떼어내지 못했다. 물결은 멈추지 않는다. 세계는 끝내 하나로 굳지 않는다. 한쪽은 ‘자유’의 이름으로 비어 있고, 다른 한쪽은 ‘혁명’의 이름으로 닫혀 있다. 명준은 그 두 사이를 오래 서성이다가 결국 바다를 마지막 광장으로 삼는다. 4·19의 바람이 풀려나던 시절, 이 첫 장면은 이미 작품의 운명을 품고 있었다. 억눌린 말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하자 작가는 분단의 비극을 기록의 언어가 아니라 심장의 언어로 써 내려갔다. 그래서 『광장』은 시대소설을 넘어 ‘사람이 제 삶을 어디에 놓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직접 묻는다. 난간 위를 스치던 갈매기는 어느 쪽에도 완전히 닿지 못한 말을 품은 채 배를 따라 날아간다. 미완의 전령 같은 그 궤적이 이 소설의 물음표를 길게 끌고 간다.

제목 ‘광장’은 장소명이 아니다. 광장은 서로 다른 주장들이 함께 머물 수 있도록 규칙과 절차로 설계된 시간과 공간을 뜻한다. 반대가 위험이 아니라 필요가 되고, 실패가 낙인이 아니라 다음 발언의 근거가 되는 자리이다. 이 정의를 품고 다시 작품을 보면, 남쪽의 광장은 표어만 번쩍이고 책임이 가벼운 ‘빈 공간’으로, 북쪽의 광장은 구호가 숨구멍까지 침투하는 ‘닫힌 공간’으로 나타난다. 전자는 말의 무게를 지탱할 제도가 비어 있고, 후자는 개인의 내밀함을 지켜줄 여백이 없다. 두 세계는 정반대처럼 보이지만 둘 다 사람이 살아갈 자리를 찾아간다는 점에서 기묘하게 닮아 있다.

나는 이 첫 장면에서 오늘의 풍경을 본다. 알고리즘이 분노를 줄 세우고 시장이 관심을 가격표로 매기는 디지털 장터에서 우리는 자주 ‘광장처럼 보이는 무대’만을 경험한다. 스크롤을 미는 엄지에는 잔열이 남고, 화면 뒤편에서는 형광등처럼 웅웅거리는 합창이 멈추지 않는다. 장터와 무대가 나쁘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사회적 안전망과 권리의 언어가 제도화되지 않으면 자유는 강자의 여분이 되고 질서는 약자의 침묵이 된다. 명준이 바다를 내려다보던 그 시간, 그는 어쩌면 이미 알고 있었다. 광장이 설계되지 않을 때 인간의 선택은 선택이 아니라 침몰이 된다는 사실을. 그래서 이 소설의 바다는 구원이자 심연이다. 무한히 열려 있는 듯 보이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고

모든 것을 삼키는 거대한 침묵이기도 하다. 그 침묵 속에서 말은 살아 있으면서도 들리지 않는다. 그 앞에서 나는 묻는다. 우리 시대의 광장은 사람에게 설 자리를 주고 있는가.

나는 이 소설의 비극이 ‘광장’과 ‘밀실’이라는 두 공간의 긴장에서 시작된다고 보았다. 광장은 진실이 제도와 맞닿는 경계선이고, 밀실은 제도가 삼켜버린 인간의 숨이 간신히 버티는 자리이다. 남쪽의 광장은 비어 있다. 자유는 간판처럼 번쩍이지만 그 아래에서 말의 무게를 떠받칠 제도는 부재하다. 의심과 취조의 억양이 공권력의 목소리를 대신하고, 사적인 욕망과 냉소는 공적 토론의 자리를 잠먹는다. 그래서 그의 말은 안전한 발화의 조건을 찾지 못한 채 점점 내면으로 수축해 간다. 윤애와의 사랑이 그 공허를 잠시 덮어주지만 사랑만으로는 공적 세계의 냉기를 이길 수 없다. 체온은 곧 식는다. 이 소설의 비극은 그 사랑이 개인의 품을 벗어나 사회의 구조로 건너가지 못한 데 있다.

북쪽에서 명준은 또 다른 형태의 실패를 목격한다. 광장은 비어 있지 않았다. 오히려 구호로 과밀했다. 구호가 공기의 빈틈을 메우고, 동의는 의례가 되며, 비판은 의심으로 바뀐다. 평등의 언어가 신념의 규율로 변할 때, 사람의 숨은 제도보다 먼저 식어 버린다. 편집국의 책상들 사이에서 그는 말이 구호의 박자로만 울릴 때 생기는 공포를 체감한다. 그 세계는 밀실을 불필요한 사치로 취급하고 내밀함을 위협으로 분류한다. 그 결과 사랑과 예술은 가장 먼저 지친다. 은혜의 몸짓은 말이 닿지 못하는 것을 건네지만, 체제의 잣대는 그 숨을 먼저 겨눈다. 밀실이 사라진 자리의 광장은 결국 사람을 하나의 구호로만 남긴다.

중요한 것은 광장과 밀실이 서로의 대립이 아닌 조건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다. 광장은 밀실의 온기를 품을 때 비로소 제 기능을 하고, 밀실은 광장의 숨결을 느낄 때 오래 숨을 쉰다. 이 균형이 무너질 때, 사랑은 피로로, 공공은 감시로 변한다. 결국 사람이 숨 쉴 수 있는 사회란, 사적인 온기와 공적인 제도가 서로의 숨결을 이어주는 곳이다.

이 지점에서 나는 ‘밀실’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밀실은 도피가 아니라 공적 언어가 차가워지지 않도록 개인의 온도를 지켜주는 방이었다. 사랑과 우정, 예술과 사유는 그 방에서 체온을 회복한다. 회복된 체온이 광장으로 건너가려면 그 다리를 제도가 놓아야 한다. 다리가 놓이지 않으면 그 체온은 방 안에서만 맴돌다 식고 만다. 윤애와 은혜는 각자의 방식으로 이 사실을 증언한다. 제도의 뒷받침 없는 온기는 금세 피로해진다. 안전하게 말할 규칙이 없을 때 예술의 숨이 가장 먼저 멎는다. ‘광장’과 ‘밀실’은 선악

의 이항이 아니라, 서로를 비추며 인간의 자리를 되묻는 두 거울이다. 그 두 거울 속에서 우리는 지금도 묻는다. 사람은 어디에서 사람으로 남을 수 있는가.

소설의 구조는 견고하다. 현재의 닛은 전쟁 직후 포로석방의 국면, 중립국행 포로들을 태운 인도 선박 타고르호의 갑판이다. 작가는 이 현재를 축으로 남과 북의 과거를 교차시킨다. 시점의 왕복은 단지 기교가 아니다. 그것은 ‘왜 이 청년이 갑판의 난간으로 몰렸는가’를 구조의 연쇄로 보여주기 위한 장치이다.

남쪽에서 명준은 월북한 아버지의 그림자 속에서 의심과 취조, 폭력의 복도를 지나간다. 남쪽의 광장은 자유의 간판을 내걸었지만, 말의 안전을 보장하는 절차는 부재하다. 취조실에서 ‘마르크스 철학’ 운운에 이어 무력의 언어가 먼저 날아든다. ‘자유’가 절차 없는 구호일 때 개인의 문장은 곧 죄목이 된다. 발화의 자리는 허락되지 않고, 냉소는 사랑의 언어 속에도 스며든다. 운애의 체온은 잠시 그 공허를 덮지만 제도가 비켜선 온기는 오래 버티지 못한다. 결국 남쪽의 빈 광장이 그를 북쪽의 가능성 쪽으로 내몰았다. 반면 북쪽의 광장은 과밀하다. 신문사 책상들 사이에서 명준은 의미가 빠진 언어의 공포를 체험한다. 평등의 약속은 동원으로, 비판은 의심으로 바뀌는 현실을 목도한다. 은혜의 춤은 잠시 다른 리듬을 열지만, 전쟁은 예술의 숨을 먼저 겨눈다. 편집국에서 구호의 박자에 맞춰 문장을 다듬게 하는 강요가 이어진다. 평등이 동원의 억양으로 굳을 때 숨이 먼저 굳는다. 내밀함은 위협으로 간주되고 사람은 하나의 구호로 환원된다. 명준이 태식을 풀어주는 순간, 그는 폭력을 넘어서는 작은 윤리를 보여준다. 하지만 그 윤리가 구조의 벽을 넘지는 못한다.

포로가 된 명준은 선택의 순간, 남도 북도 아닌 ‘중립국’을 택한다. 여기서 중립은 판단을 미루는 태도가 아니라, 거짓된 귀속을 거부하려는 마지막 고집으로 읽힌다. 하지만 고집을 지켜낼 제도적 방법이 부재할 때 중립은 사상이 아니라 심연이 된다. 그래서 타고르호의 난간은 그의 고민이 닿은 마지막 자리가 된다. 바다는 무한의 가능성처럼 펼쳐지지만 동시에 인간에게 아무 책임도 묻지 않는 냉담한 공간이기도 하다. 사회가 마련했어야 할 문턱을, 바다가 임시로 떠맡는 그 장면에서 소설은 절정에 이른다. 난간은 문턱이자 문장부호이다. 삶과 죽음, 발언과 침묵 사이에 찍힌 하나의 쉼표. 그 쉼표 앞에서 나는 묻는다. 왜 이 청년에게 중립은 삶이 아니라 난간이 되었는가. 답은 개인의 성격이 아니라 사회의 설계에 있다. 절차와 권리, 규칙과 신뢰로 구성된 광장이 부재한 곳에서, 중립은 길이 아니라 끝의 가장자리로 밀

려난다. 그러나 길 없는 고집은 오래 서 있지 못한다. 제도가 비어 있을 때 그 고집은 윤리에서 곧 심연으로 굴러떨어진다.

나는 이 사유를 오늘의 언어로 옮겨 보면, 좋은 사람의 선의만으로는 공동의 삶은 서지 않는다. 사랑과 우정, 예술과 용서가 필요하지만 그것들이 제도와 맞닿을 다리가 없으면 오래 버티지 못한다. 『광장』은 결말의 비극으로 닫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설계가 비어 있는 곳을 비추는 거울이다. 거울은 묻는다. 너희의 광장은 사람에게 살 자리를 주고 있는가. 너희의 밑실은 광장으로 건너갈 다리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다리는 규칙과 권리, 그리고 예술과 언어의 자유가 교차하는 설계도 위에 놓였는가. 이 거울의 질문은 곧, 추상이 아니라 사람의 얼굴로 내려온다.

이명준을 움직이는 것은 차가운 이성보다 상처 입은 감수성이다. 그는 ‘거짓으로 귀속되지 않겠다’는 최소한의 윤리를 끝내 놓지 않았다. 남쪽에서 의심과 취조를 통과하며 배운다. 자유가 구호로만 존재할 때, 개인의 말 한 줄이 언제든 죄목이 된다는 사실을. 북쪽의 편집국 책상 사이에서 체득한다. 평등이 규율의 억양으로만 발화될 때, 개인의 말 한 줄이 언제든 공적 검열의 재료가 된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의 ‘중립’은 회피의 몸짓이 아니라 자기 기만을 거부하려는 고집이다. 문제는 그 고집을 지탱해 줄 제도적 방법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윤리는 홀로 설 수 있지만, 오래 서 있으려면 구조가 팔을 들어 받쳐야 한다. 명준의 도덕이 난간 위에서 흔들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윤애는 사적인 온기의 가능성이다. 그녀와 함께 걷고 같은 식탁을 사이에 두고 말을 나누는 동안 명준은 인간이 관계의 존재라는 당연한 사실을 다시 체감한다. 그러나 제도가 비켜선 온기는 쉽게 지친다. 남쪽의 빈 광장은 사적인 친밀성마저 냉소의 눈초리로 소모하고, 그 냉소는 사랑의 어휘 속에도 얼음처럼 박힌다. 윤애는 말없이 증언한다. 사랑만으로는 제도의 빈자리를 채울 수 없다는, 슬프지만 정확한 사실을.

은혜는 예술의 숨결로 등장한다. 그녀의 춤은 언어가 닿지 못하는 경계를 가볍게 넘는다. 표어의 리듬과 검열의 박자가 지배하는 공간에서 은혜의 몸은 다른 리듬의 시간을 펼쳐 보인다. 그러나 전쟁은 예술의 숨을 가장 먼저 겨눈다. 은혜의 비극은 국가가 공공성을 독점할 때, 문화가 정치적 순응의 기준에 따라 재단되는 과정을 드러낸다. 나는 여기서 사적 감수성과 공적 제도의 관계를 확인한다. 예술이 공적 인프라로 존중받을 때에만 개인의 감수성은 사회의 언어로 옮겨진다. 그 반대라면 아름다움조차 의심의 항목이 된다.

태식은 폭력의 회로를 눈앞에 들이대는 인물이다. 그는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이다. 권력이 만든 질문지를 들고 나오면 가해자가 되고, 그 질문지의 바깥으로 밀려나면 곧 피해자가 된다. 명준이 그를 풀어주는 장면은 응징의 본능을 넘어서는 작은 윤리이다. 그러나 소설은 감상으로 덮지 않는다. 작은 윤리가 구조를 이기기 어렵다는 사실을 눈 돌릴 수 없도록 보여준다. 그래서 이 장면은 오래 남는다. 폭력을 멈추게 하는 것은 결심이 아니라 구조이다. 개인의 윤리가 제도와 만나지 못하면 선의는 오래 버티지 못한다.

주변 인물들도 각자의 얼굴로 제도의 공백을 증언한다. 월북한 아버지의 흔적은 명준에게 이념의 유산이 아니라, 자리 없는 자의 계보로 남는다. 취조실의 관리들은 직무를 수행하지만, 그 언어는 이미 사람을 잊은 기계의 말이다. 편집국의 동료들은 선의를 지니기도 하지만, 선의는 절차의 보호 없이 곧 피로로 변한다. 포로 수용소의 풍경이 더해지면 질문은 한 곳으로 모인다. 사람이 제 삶을 의미 있게 낭비할 수 있는 공간이 우리에게 남아 있는가. 아니면 삶은 오로지 규범과 효율의 등록부에만 이름을 올릴 수 있는가.

이 인물들을 하나의 선으로 이어보면 그 끝에는 사랑과 예술, 그리고 용서가 있다. 이 세 가지 제스처는 인간을 지탱하는 기초이다. 그러나 터만 다져서는 집이 서지 않는다. 집이 오래 서 있으려면 권리와 절차, 신뢰와 복지 같은 공적 장치가 함께 있어야 한다.

이 작품의 상징들은 서로를 지지하며 서사를 세운다. 중심에는 광장과 밀실이 있다. 광장은 제도가 발화를 보호하는 공적 장치이고, 밀실은 그 제도에서 밀려난 개인의 숨이 간신히 회복되는 방이다. 남쪽의 광장은 지나치게 비어 있고, 북쪽의 광장은 숨이 막힐 만큼 차 있다. 하나는 책임이 없고, 다른 하나는 자유가 없다. 서로를 부정하지만 결국 같은 결론에 닿는다. 사람이 설 자리가 사라진다는 것. 명준의 여정은 그래서 균형을 잃은 사회가 남긴 진동의 궤적이다.

바다는 균형이 무너진 자리에 스며드는 무한의 은유이다. 끝없이 열려 있으나, 동시에 냉담하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모든 것을 삼키며, 모든 것을 품되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다. 명준이 내려다본 수평선은 희망의 선이자 심연이다. 그가 몸을 기댄 난간은 무한과 세계의 경계에 세워진 마지막 버팀목이다. 난간은 문장부호처럼 서 있다. 삶과 죽음, 발언과 침묵 사이에 걸린 하나의 쉼표. 사회가 마련했어야 할 문턱을 바다가 임시로 떠맡고 있다는 사실이, 이 쉼표를 더 아프게 만든다.

‘타고르호’라는 배의 이름은 보편의 약속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흔들리고 머무는지를 비춘다. 연대와 인류애를 상징하는 그 이름이 선체에 새겨져

있지만, 이름의 빛이 곧 삶의 조건을 바꾸지는 못한다. 보편과 현실 사이에는 늘 간극이 있고, 그 간극을 메우는 것이 규칙과 권리, 절차이다. 다리가 없으면 보편은 선창에 그려진 문장처럼 남는다. 그래서 타고르호의 갑판은 이상이 제도적 형태로 구현되지 못했을 때의 고요한 풍경을 보여준다.

갈매기는 목격자이자 미완의 전령이다. 바다와 하늘의 경계에서 맴도는 그 생명체는, 전하지 못한 편지를 품은 메신저처럼 보인다. 누구에게도 온전히 닿지 못한 말, 예를 들면 명준의 고독, 윤애의 체온, 은혜의 호흡이 갈매기의 궤적처럼 공중에 잠시 그려졌다가 사라진다. 그 흔적은 나의 기억 속에서만 완성되었다. 마치 소설이 나에게 책임을 넘기려는 듯 보였다. 당신의 광장은 어디에 있는가. 당신은 어떤 다리를 놓을 것인가.

언어와 몸은 이 작품에서 또 하나의 대비로 나타난다. 북쪽의 언어는 표어의 박자에 갇히고, 남쪽의 언어는 책임의 가벼움 속에서 공허해진다. 그 사이에서 은혜의 춤은 언어가 잃어버린 고유의 리듬을 되살린다. 몸은 타이핑할 수 없는 의미를 전하고, 침묵 사이의 박동을 되돌린다. 하지만 몸 역시 제도에 의해 재단될 때 말처럼 굳어진다. 결국 몸과 언어는 서로를 구원하면서도 동시에 서로를 위태롭게 한다. 그래서 말과 몸이 함께 머물 수 있는 사회의 규칙이 필요하다.

나는 상징의 지도를 이렇게 정리한다. 광장과 밀실은 구조의 좌표, 바다와 난간은 문턱의 형식, 타고르호와 갈매기는 보편의 약속과 현실의 간극, 몸과 언어는 의미 생산의 두 동력이다. 이 네 축이 겹쳐질 때, 소설은 분단을 단순한 사건으로 다루지 않고 삶의 기술로 다룬다. 그리고 그 기술이 실패했을 때 어떤 파국이 오는지를 직접 느끼게 한다.

마지막으로, 이념에 대한 나의 시선을 짧게 남긴다. 권리와 책임이 먼저 놓여야 자유가 실제로 작동한다. 안전망이 촘촘할수록 선택은 더 과감해지고 논쟁은 더 정직해진다. 시장은 유능할 수 있지만 인간을 부품으로 환원하는 순간 광장은 장터로 퇴화한다. 그때 필요한 것은 더 큰 구매가 아니라 더 나은 제도다. 이 믿음은 좌우의 언어로 쉽게 재단되지만 나는 이것을 사람의 자리를 지키려는 가장 현실적인 윤리로 본다.

남쪽의 취조실과 북쪽의 편집국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말을 다치게 한다. 하나는 의심의 과잉으로, 다른 하나는 동의의 과잉으로 사람을 납작하게 만든다. 그 사이에서 타고르호의 난간은 삶과 죽음, 발언과 침묵 사이에 찍힌 하나의 쉼표가 된다. 제도가 그 쉼표를 받아낼 자리를 마련하지 못했을 때, 명준의 중립은 길이 아니라 가장자리로 기울었다. 이 비극은 한 개인의 무능이 아니라, 사회가 놓지 못한 다리에 대한 기록이다.

윤애의 온기, 은혜의 호흡, 태식에게 건넨 작은 용서는 다 시작의 신호이다. 하지만 작동을 지속시키는 것은 공적 장치이다. 사랑이 오래 버티고 예술이 숨 쉬려면, 밀실의 체온이 광장의 언어로 건너가게 하는 견고한 다리, 즉 권리와 절차가 뒤따라야 한다. 좋은 광장 없이는 좋은 밀실도, 좋은 밀실 없이는 좋은 광장도 사람이 설 수 없다.

이제 남는 것은 거창한 이상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방식이다. 서두르지 않고 절차를 지키며 같은 일에는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이유와 반대 의견도 함께 남기는 일.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일부러 부딪치며 실수를 잊지 않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기록하는 일. 이런 작고 꾸준한 습관들이야말로 사회를 오래 버티게 만든다. 그렇게 삶의 규칙들이 쌓일 때, 난간에 멈춰 있던 쉼표는 다시 다리의 첫 걸음이 된다.

책을 덮고 남는 감촉은 차가운 난간이다. 손바닥에 남는 소금기와 쇠의 냉기가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는다. 어쩌면 아직 다리를 놓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바다는 넓지만 책임을 묻지 않는다. 공동의 책임은 우리 몫이다. 그 당연한 말을 나는 다시 배운다. 결국 결론은 간명하다. 좋은 사람의 선의 만으로는 공동의 삶이 서지 않는다. 사람이 설 수 있는 광장은 설계되어야 한다. 그래서 나는 마지막 질문을 내 앞에 놓는다. 우리의 도시는 사람에게 설 자리를 주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오늘 내가 놓을 첫 번째 다리는 무엇인가.

나는 어떤 광장 위에 서 있는가.



“Global Leaders, Great Readers”

2025 정독상 독서감상문

장려상 수상작

글로벌스포츠산업전공 21

신 윤 석



수상소감

장려상



신 윤 석

글로벌스포츠포럼 21

숨결이 점차 형상을 드러내는 서늘한 초겨울에
이토록 따뜻한 상을 받게 되어 여느 때보다
온화한 연말을 보낼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수상이라는 영예를 선물해 주신 심사위원분들과
매년 대회 준비에 고생을 마다하지 않으시는
도서관장님 그리고 선생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 싶습니다. 저와 함께 시상식에 참여한 다른
학우분들께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수상으로 정독상 대회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상을 받게 되었고,
평생 녹슬지 않고 아름답게 반짝일 특별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글임에도 좋은 평가를 받았던 때 순간이 행복하고 과분하였지만, 올해 상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였을 때 그 어떤 인정보다 더 큰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상의 우열과 역행하는 모순된 감정은 진실한 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전까지
써 왔던 글은 목적성이 강하였습니다. 상을 타기 위하여, 누군가의 입맛을 위하여
골백번의 난도질과 포장을 반복한 글 속에는 내가 사라진 채 타인의 시선만
남아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당연하게도 그렇게 얻게 된 유산은 향이 없는
꽃이었고, 광을 잃은 눈이었습니다.

수상소감

하지만 이번 정독상 대회에 제출한 글은 첫 문단의 들여쓰기부터 끝을 알리는 온점 하나까지 온전히 ‘나’였습니다. 우리가 왜 촛불을 들어야 하는지,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여성이 얼마나 심각한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지, 참사로 인하여 남겨진 자들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저만의 관점에서 있는 그대로 표현하였고, 성공에 대한 갈망이 아닌 진실을 향한 용기를 담았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아니 기대하지 못하였던 영광은 진실한 나의 모습도 누군가를 설득할 수 있다는,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더욱 진실하고 꾸밈없는 글을 쓰겠습니다. 혐오와 비난에 상처를 받는 약자를 위하여 글을 쓰고, 오늘의 명예가 아닌 내일의 평화를 위한 글을 쓰겠습니다. 해가 갈수록 추워지는 날씨에 세상으로부터 외면 받는 이가 없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다시 한번 수상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목: 그들이 져지 않길 바랐다
선정 도서: 디디의 우산(황정은)

신윤석

‘열차가 들어옵니다.’

철쭉 같이 어두운 철로를 뚫고 지하철 한 대가 승강장을 향하여 서서히 다가온다. 정확히는, 9호선 열차이다. 단풍잎이 자취를 감추고 숨결의 형태가 반듯하게 드러나는 계절이 올 때면 시계를 찰지 말지에 대한 고민에 휩싸이곤 한다. 겨울철 외투는 팔 기장이 길어 시계를 찬다 한들 옷에 가려 잘 보이지 않고, 시계를 보기 위하여 옷을 들추는 것도 여간 힘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날은 한파 예보에 두꺼운 패딩까지 몇 겹을 껴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왼쪽 손목이 무거웠고, 난생 처음 받아보는 수백 통의 연락과 뉴스 알림으로 인하여 멍통이 된 휴대전화 대신 오랜만에 시계로 시간을 확인하였다. 시침은 10보다는 11에 조금 더 가까웠으며 분침은 9를 곧 떠날 채비를 하고 있었다. 22시 45분, 오늘따라 비좁은 3-1번 칸에 겨우 몸을 실었다. 학업을 이유로 회기역 근처에서 자취를 하고 있던 나는 1호선을, 아니 1호선만을 이용하였다. 아주 가끔 경의중앙선을 타긴 하였지만, 9호선은 숫자 1과 9의 거리만큼 나의 일상과도 멀었고, 당장 내일 아침 9호선이 없어진다고 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을 정도였다. 그런 내가 9호선을 오매불망 기다렸다. 그것도 밤 11시에 말이다. 2024년 12월 3일, 초면에 몸을 맡긴 9호선 열차는 국회의사당역으로 향하고 있었다.

헌법을 위반하고 국민의 일상을 위협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최초로 인지한 시점은 공식 발표 직후인 22시 30분경이었다. 일정을 마치고 귀가하는 길이었고, 매일 같이 사용한지가 벌써 3년이 넘어 통화 품질이 저하된 에어팟을 활용하지 않고 다소 고전적인 방식으로 휴대전화를 귀에 가져다 댄 채 친구와 전화를 하는 중이었다. 지하철 내부 스피커에서 회기역의 직전 역인 외대앞역 하차 안내 음성이 나오던 찰나, 차분한 성격의 친구가 도통 어울리지 않는 다급한 목소리로 네이버 속보를 확인해 보라고 소리쳤고 현대 사회에서 악의적 오보가 아니라면 믿기 힘들 법한 비상계엄령 선포 기사를 수십 개씩이나 마주하였다.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전개에 현실 감각을 잠시 상실하였지만 이내 사태 파악의 긴급성을 느껴 정신을 차렸고, 논리적으로 정당성을 따질 수 있는 법적인 지식이 충분치 않았어도 본능적으

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꼈다. 이제 나에게 남은 명제는 하나였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렴풋이 기억나는 포고령의 내용과 계엄 선포 이전까지의 여야 갈등 국면을 미루어 짐작한 최선의 답변은 ‘국회로 가자.’ 였고, 9호선 환승이 가능한 노량진역으로 가기 위하여 오늘도 내릴 줄만 알았던 회기역을 지나쳤다.

진입로가 차단된 정문에서 인과를 따라 우회하여 가장자리의 담을 넘었고, 국회 출입문에 도착한 시간은 불행 중 다행으로 계엄군의 헬리콥터가 국회 내부로 진입하기 시작한 23시 근처였다. 계엄군이 국회 내부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시민들이 대열을 이루어 문 앞을 막았고 완전 무장을 한 특수부대원들과 정문에서 대치하였을 때 비로소 공포감과 두려움이 엄습해 왔다. 그제서야 ‘정말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동물적인 판단과 함께 민주주의를 침탈하려는 세력에 맞서 싸웠던 시민들을 국가 권력이 어떻게 짓밟았는지에 대한 참상이 스쳐 지나갔다. 사고를 길게 할 틈도 없이 계엄군과의 물리적인 대치가 시작되었고, 방어선을 사수하기 위한 사투에 이어 국회의 의결로 계엄령이 일단락 될 때까지 대기한 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였다. 집까지 갈 수 있는 합리적인 교통수단은 두 시간 후에 오는 첫차였기에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실내를 찾아보았고, 피곤에 찌든 몸을 이끌고 근처 카페로 이동하였다.

잠시 소파에 등을 기대 채 가족과 친구들에게 뒤늦은 소식을 전하였고,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순식간에 지나간 몇 시간을 파노라마처럼 정리할 수 있던 귀중한 시간이기도 하였다. 카페 내부는 오후 4시라고 하여도 믿을 정도로 시끌벅적하였다. 아, 왜냐하면 국회 내외부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켰던 시민들이 지인에게 자신의 안부를 전하는 전화 소리가 작지 않은 공간을 가득 메웠기 때문이다. 감겨오는 눈꺼풀을 억지로 들어올려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추측하였다. “이 분들은 다 같은 이유로 이 카페에 와 있겠구나”. 그렇다, 영하 10도 안팎의 한파 속에서 앉아 있지도 못하고 오히려 장시간 체력을 소진하였으니 노곤한 몸과 마음을 잠시나마 달래기 위하여 모두 이 곳을 찾았다는 추론에 확신이 들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뭇 다른 형태의 자문을 던졌다. “과연 이 분들이 국회로 달려간 이유도 다 같을까?”. 정신이 없는 나머지 기자증을 미처 벗지 못한 저 기자분은 취재를 위하여 오셨을 것이며, 앞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누시는 부모님 세대의 몇 분은 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뭉치셨겠지. 눈동자만 굴러 가며 분석을 거의 마쳐가던 그때, 아직 한 사람이 남았다는 사실을 자각하였다. 그리고 그 사람은 별도의 도구 없이는 눈을 맞댈 수 없는 존재

였다. 나는 그 특이한 존재에게 시각적으로 접촉하기를 포기하고 개별적인 질문을 건네었다. “나는 왜 국회에 갔을까?”. 직관적으로 떠올린 답변은 상황의 옳고 그름이 명확하였음과 당연히 가야만 했다는 당위성이었지만, 아쉽게도 스스로 만족할 만큼 설득력 있고 논리정연한 정답이 아니었다. 오직 사리분별과 당위성만으로는 나 자신을 설득하여 국회의 담을 넘게 할 수 없었다고도 생각하였다. 나는 쉽사리 그럴듯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애꿎은 커피만 마셔 났고, 카페인의 각성 작용으로 뚜렷해진 정신과 여전히 녹초 상태인 몸의 괴리 사이에서 기억의 파편을 떠올렸다.

유튜브 ‘쇼츠’ 폼은 인스타그램 ‘릴스’ 폼이 재생이 끝나면 다음 게시물로 넘어가는 형식과 상이하게 하나의 ‘쇼츠’가 끝나면 반복 재생이 된다. 하루는 샤워를 마치고 외출 준비를 하며 구독한 유튜브의 영상을 라디오처럼 듣고자 유튜브에 들어갔는데 ‘쇼츠’ 폼에 들어가졌고(오류인지 가끔 이런 경우가 있다.) 김재규의 박정희 시해 사건, 일명 10.26 사태를 다룬 영화 ‘남산의 부장들’ 속 이병헌 배우의 명장면을 모아둔 30초가량의 짧은 영상이 재생되었다. 유튜브에 접속함과 동시에 머리를 말리기 시작한지라 다른 영상으로 넘기거나 종료하기 힘들었고, 그렇게 같은 내용의 음성을 20번이나 반복하여 듣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머리를 다 말린 후 여전히 앵무새처럼 똑같은 대본을 읽고 있는 휴대전화에게 ‘고생했다’고 마음으로 속삭였던, 웃긴 해프닝이었다. 문득 이 장면이 그려지면서 작은 웃음을 자아냈고, 부단히 이유를 찾으려 노력하던 머리 속에 한 마디의 음성이 웅웅 댄들었다. 이병헌 배우가 작중 박정희 대통령에게 마지막으로 건넨 질문이었다. “각하, 왜 혁명을 하셨습니까”.

d와 내가 처음 조우한 곳은 아름다운 이름의 책방 겸 카페였다. 한창 커피 본연의 맛을 느껴보고 싶다는 생각에(많이 바빴을 때였고 어차피 커피를 마실 수밖에 없으니 되도록이면 맛있는 커피를 마셔보자는 일종의 정신 승리가 생각의 발원지였다.) 직접 원두를 내려 만드는 핸드드립 방식의 커피를 찾아다니게 되었고, 향긋한 커피와 함께 책까지 음미할 수 있는 카페는 지나칠 수 없었기에 방문하게 된 공간이었다. 핸드드립 커피의 유일한 단점은 오랜 기다림이다. 물론 원두가 내려지는 따뜻한 향을 맡으며 애타게 기다리는 시간도 커피 맛의 일부라고도 생각하지만, 아무튼 커피 주문을 마치는 대로 서적이 빼곡한 책방 칸으로 발걸음을 옮겼고 천천히 책 제목을 훑어보기 시작하였다. 책방 속 서적에는 그 책을 읽어보고, 구입하고, 적당한 위치에 꽂아 놓은 사장님의 가치관 투영되어 있다. 빅 데이터라고 하기엔 표본의 개수

가 턱없이 부족하지만, 책방에 담긴 서적을 바라볼 때면 내가 사장님이 되어 세상을 바라보는 것만 같다. 상업이 아닌 사람이 담긴 책, 서점이 아닌 책방의 특징이자 내가 서점보다 책방에서 도서를 구매하는 것을 선호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좌측 상단에서 우측 하단으로 눈길을 옮기며 내 커피에 담긴 사장님의 삶을 반추해 가던 찰나, 사장님께서 커피를 잔에 옮겨 담으시며 말을 건네셨다. “사회에 관심이 많으세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며 “네, 세상살이에 관심이 많아요.” 라고 답을 드렸고, 사장님께서 완성된 커피를 나에게 전해주시면서 가방에 달린 노란 리본을 보고 말을 걸어왔다고 교감을 시도하신 근거를 설명하셨다. 얼떨결에 처음 뵙는 카페 사장님과 우리의 삶에 대하여 나를 심오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고, 평소 책과 가까이 지내는 일상을 소개해 드리자 내가 잘 읽을 거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커다란 책꽂이 맨 위쪽에 꽂힌 두 권의 도서를 보여주셨다. 그 중 한 권은 박래균 작가의 ‘우리에게 기억할 것이 있다’ 였으며, 다른 한 권이 바로 황정은 작가의 ‘디디의 우산’ 이었다. 사장님의 여유로움과 커피의 완벽한 맛에 신뢰감을 갖고 표지도 넘겨보지 않은 채 두 권을 구입하였고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디디의 우산’ 을 읽기 시작하였다. 이 도서는 ‘웃는 남자[d]’ 라는 오묘한 제목으로 첫 번째 막을 올렸다. 주인공 d는 세운상가의 배달부이다. dd의 우산을 빌리는 계기로 dd와 연인 관계를 맺었으나 dd는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먼저 등졌고, 세운상가의 상인 여소녀와 상실감과 무력감을 공유하며 사회가 얼마나 죽음에 무관심한지 돌아본다. 이들은 장통교를 건너다 우연히 세월호 참사 추모 집회를 마주하게 되고, d는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dd를 떠올린다.

‘그들과 d에게는 같은 것이 거의 없었다. 다른 장소, 다른 삶, 다른 죽음을 겪는 사람들. 그들은 애인을 잃었고 나도 애인을 잃었다. 그들이 싸우고 있다는 것을 d는 생각했다. 그 사람들은 무엇에 저항하고 있다. 하찮음에 하찮음에’ .

코로나19는 셀 수 없이 많은 것을 앗아갔고, 나는 세월호 추모 행사를 잃었다.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2018년, 교외 인권동아리 회장이었던 2학년 선배가 내 가방에 달린 노란 리본을 보고 동아리 가입을 권유하였고, 2016년부터 촛불을 들었던 여정을 부원들에게 소개하며 함께 활동을 하게 되었다. 매주 일요일 여성 인권, 노동자 인권, 청소년 참정권 등 다양한 인권을 학습하고 집회에 참여하면서 빠르게 적응을 해 나갔고, 가입한 지 한 달이 채 되

지 않은 시점에 동아리의 존재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청소년이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는 세월호 추모 행사였고,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의 공원을 대여하여 진행하는 꽤나 큰 작업이었다. 기존 동아리 부원들은 2016년 겨울부터 이 행사를 진행해 왔으니 시민들은 마치 연례 행사로 느낀다고 공간 대여를 담당하시는 공무원분께서 말씀하신 기억도 난다. 세월호 추모 행사를 준비하는 한 달 간은 부원 모두가 학교 생활보다 동아리 활동에 더욱 집중하였고, 그만큼 많은 시간을 투자하였다. 협조 공문을 작성하고, 공간을 대여하고, 지역 인권 단체들에게 참여를 부탁하고, 홍보물을 제작하고, 천막 설치 업체에 가격을 문의하였고, 이러한 준비 과정은 색종이로 만든 노란 리본을 제작하기 위하여 하루에 두 시간씩 가위질을 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였다. 행사 당일 새벽까지도 작업을 이어갔고 다행히 행사를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다. 다음 해인 2019년에는 부단장직을 맡아 첫 행사를 진행하였던 경험을 토대로 열심히 준비하였고, 성공적으로 행사를 운영하였다. 이윽고 찾아온 2020년은 코로나라는 불청객과 함께 등장하였고, 그 불청객은 우리에게 세월호 추모 행사 진행 불가라는 가혹한 통지서를 내 보였다. 우리는 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면 세월호 추모 행사를 한창 준비하고 있을 3월에 지난 몇 년간 세월호 추모 행사를 진행하며 느꼈던 점과 소회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고, 영원할 것 같았던 청춘들의 노란빛 날갯짓은 생각보다 너무 이른 시기에 멈추고 말았다.

d의 가슴 시린 울분은 나에게 질문을 던졌다. “나는 왜 세월호 추모 행사를 진행하는 데 마음을 쏟았는가?”. 너무나도 선명히 기억한다. 어떤 기억은 지우려고 하면 할수록 짙어진다고, 나에게 세월호는 그런 기억이다. 2014년 4월 16일, 나는 초등학생이었고 여느 때처럼 축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당시엔 휴대전화를 잘 들고 다니지 않아 세상이 돌아가는 소식은 안방에 위치한 TV를 통하여 주로 확인하였는데 뉴스를 어떻게 보는지 잘 모르는 나이지만 빨간 바탕에 흰색 글씨가 올라간 문구가 뉴스 하단에 들어가면 매우 급박하거나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 날만큼은 빨간색 글씨의 속보가 송출되고 있음에도 상단 화면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흰색과 파란색이 섞인 배 한 척이 가라앉고 있었다.

초등학교 6학년이 가장 기대하는 것은 졸업이 아닌 수학여행일 것이다. 대개 5학년 때 다녀오는 수련회와 차원이 다른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초등학교 생활 전체를 통틀어 봐도 손에 꼽을 수 있는 행복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나는 수학여행에 대한 부푼 기대감을 안고 매일 저녁 여행을 떠나는 버스

안을 상상하였고, 실제로 달력에 표시를 해 가며 카운트 다운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내 눈에 비치는 저 커다란 배 안에는 수학여행을 가던 학생들이 타고 있다고 하였다. 나는 그 사실을 듣자마자 지금까지도 느껴보지 못한 불행함을 느꼈다.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얼마나 추울까, 얼마나 허무할까. 나이가 많이 어렸지만 그들도 같은 학생이기에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배에 올라탔다는 것 하나는 설명을 듣지 않아도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의 수학여행은 행복하지 않았다. 나의 수학여행은 2014년 4월 16일 그 날에 분노와 슬픔만을 남겨두고 일찌감치 여정을 마친 것만 같았다. 2014년 봄에 그들은 애인을 잃었다. 아니, 우리 모두가 애인을 잃었다. 애인을 잃은 이는 진실을 파악하고 영원히 추모한다. 이것이 내가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못다 핀 꽃들을 간직할 이유이자 모든 가방에 노란 리본을 다는 이유이다.

d의 이야기가 막을 내리고, 이어서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다’ 라는 제목의 2장이 시작을 알린다. 누구도 죽지 않은 소설을 써 내려가는 화자가 자신, 애인 서수경, 동생 김소리, 조카 정진원과의 추억을 회상하며 이야기가 전개된다. 이야기 중간에 퀴어, 페미니즘, 상식에 대한 반론 등 다양한 인권적 요소가 등장하여 흥미를 돋운 점이 인상 깊게 느껴졌다. 특히 여름 농활에서 T의 언행을 묘사하는 장면은 이 책에서 가장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은 구절이었다. 그 내용을 한 자 한 자 타자로 기입해야 하는 기분은 227페이지에 나오는 아스카의 말로 대체하겠다. 기분 나빠.

“T는 수년 전 종로 모처에서 얼굴 못생긴 여자가 서비스가 좋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말에 격분하며 그것이 무슨 말이냐고, 얼굴 예쁜 애들이 섹스도 잘한다고 떠들어대는 사회인으로 내게 목격되었어” .

내가 기분 나쁜 이유는 T의 언행이 너무 저급해서도, 표현이 과하게 적나라해서도, 화자가 목격하는 데 그쳐서도 아니다. 비슷한 수위의, 어쩌면 더 높은 수위의 궤변을 내가 듣고 산다는 현실이 너무나도 기분이 나쁘다. 저 문구를 읽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례적인 불편감을 느끼지 않았을 거라는 나의 추정은 여성혐오적인 표현이 난무하는 현실에서 비롯되었다. 친구들과 사이에서 나는 항상 이단아였고, 배신자였고, 설득의 대상이었다. 우리나라의 여성들이 얼마나 힘겨운 삶을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감각이 곤두서기 시작한 18살 무렵부터 줄곧 여성 혐오에 저항하고, 정색하

고, 바꾸려고 노력하였다. 그 과정에서 엄청난 무력감을 느끼게 하는 요인은 그들이 스스로 잘못된 점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매번 자신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하는 증거가 바로 ‘상식’이다. 아무래도 여자가 아이를 키우는 게 아이 정서에 더 좋으니까, 다들 며느리라고 부르고 서방님이라고 부르니까,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제사상은 여자가 차렸으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을 들을 때면 진절머리가 나지 못하여 치솟는 내면의 열기가 밖으로 튀어나올까 봐 걱정이 된다. 이 책은 상식을 사유의 무능이라고 정의하는데 지금껏 내가 느껴왔던 그들의 ‘상식’이 왜 납득이 되지 않았는지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지점이었다. 아, 정말 통쾌하였다. 우리는 상식이 남용되었을 때의 위험을 인지해야 한다. 상식은 어느새 강자의 방패가 되어 우리의, 여성의, 약자의 삶을 짓누를 수 있기 때문이다. 보편타당성, 사회통념상, 상식선. 듣기만 하여도 느낌이 썩 좋지 않지 않은가.

또 다른 상식의 피해자가 있다. 화자와 서수경. 이 둘은 사랑한다는 이유로 상식에서 벗어나는 잘못된 인간으로 전락해 버린다. 매일 밤 서로의 죽음을 걱정하고, 죽은 후를 상상하고, 그들의 사랑을 ‘합법적으로’ 표현할 길을 찾는다. 여기서 우리는 상식의 개념에 대하여 재정립할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였다. ‘남성과 여성이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여 출산을 한다.’가 상식인가? 세상은 너무 오랜 시간동안 이를 상식이라고 받아들였지만 사실 상식을 가장한 주관에 지나지 않는다.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아간다’. 이것이 상식에 더 가까운 명제라고 생각한다. 사랑이라는 상식에 왜 성별이 붙고 혼인이 붙고 출산이 붙는가.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듯, 상식에 조건이 달리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상식이 아닌 누군가의 상실로서 기능한다.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고 책을 덮기 전, 한 줄의 서평을 목도하였고 12월 3일 새벽에 자문한 난제를 어찌면 지금 풀어낼 수 있겠다는 기대를 하였다. 나는 왜 국회에 갔는가? 나는 왜 혁명의 일원이었는가?

‘세상의 모든 존재들에게, 우산을.’

세월호 추모 행사에서도, 누군가가 술자리에서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을 서슴지 않고 내뱉을 때도, 국회 정문에서 계엄군과 맞설 때도, 언제나 비를 그치게 하기보다 그들이 젖지 않길 바랐다. 세월호가 진도 앞 바다 깊은 곳에

남긴 잔상을 온전히 짚어줘야 할 누군가의 슬픔을, 하루에도 몇 번씩 들려오는 수치스러운 말들에 적응하라고 압박 받는 여성의 상처를, 계엄군과 맞서 싸워 승리를 쟁취하겠다는 각오보다는 계엄이 성공하고 국민의 주권을 상실하였을 때 가족, 친구, 우리 모두가 받게 될 고통을 먼저 떠올렸다. 비를 맞는 이에게 우산을 주기는 커녕 비라는 역경을 모아 자신을 강하게 발전시키라며 비를 모을 수 있는 양동이를 건네는 사회 속에서, 이 비가 폭우가 되고 해일이 되었을 때 힘없이 쓸려갈 수밖에 없는 누군가에게 우산을 씌워주고 싶었다. 그렇다, 어쩌면 나는 그 우산을 만들기 위하여, 강자를 제압하기보다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회에 있었고 혁명의 일원이 되었던 걸지도 모른다.

이 책을 읽으며 마침내 당위성이라는 목자의 세계에서 벗어났고 말할 필요가 없었던 선택의 이유를 크게 외칠 수 있었다. 광장에서 목소리를 키우는 것은 우산의 높이를 길게 만들 것이고, 상처 입은 마음에 공감하는 것은 파라솔을 넓게 만들 것이며, 타협하지 않고 굳세게 나아가는 것은 철제를 단단하게 만들 것이다. 누군가가 나의 방향을 물어본다면 우산을 만들러 가야 한다고 답할 것이며 나의 꿈을 물어본다면 우산을 가장 크고 견고하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답할 것이다. 그리고 또 다시 승강장에서 열차를 기다린다면 마음 속에서 다른 소리가 울려 퍼질 것이다.

‘우산을 만들러 가는 열차가 들어옵니다.’



“Global Leaders, Great Readers”

2025 정독상 독서감상문

장려상 수상작

글로벌스포츠산업전공 23

우 채 림



수상소감

장려상



우 채 립

글로벌스포츠포럼전공 23

추석 연휴 동안 시간을 여유 있게 사용할 수 있었던 덕분에, 그동안 미뤄두었던 책을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선택한 책이 바로 『디디의 우산』이었고, 가볍게 읽기 시작했다가 상실과 기억을 다루는 작품의 분위기에 자연스럽게 끌렸고, 읽는 동안 여러 장면이 오래 머물러 책을 놓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작품 속 등장인물들이 상실을 잊어버리려 하기보다, 그 기억을 자신의 삶 안에 그대로 두고 살아가는 모습이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보통 우리는 아픈 기억일수록 지워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 소설에서는 오히려 상실을 ‘기억함으로써 견디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장면들을 따라가다 보니 저도 자연스럽게 ‘기억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슬픔을 잊지 않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상실을 품고 살아간다는 건 어떤 모습일까’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상실이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열리는 감정이 아니라, 때로는 현재까지도 남아 사람의 일상에 작은 흔적처럼 스며들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상실을 기억한다는 행위가 단순한 감정의 반복이 아니라, 누군가를 향한 가장 조용한 연대일 수 있다는 점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2025 정독상
독서감상문 수상자

수상소감

‘잊지 않겠다’는 마음은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누군가를 향한 깊은 책임감이자 따뜻한 배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 이해가 제게도 오래 남았습니다. 읽는 동안 마음이 여러 번 멈추고, 저도 제 삶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어 정말 의미 있었습니다.

이번 수상은 글을 잘 써서라기보다, 한 권의 책을 깊게 읽고 스스로 해석하고 고민한 시간 자체가 의미 있었다는 점에서 더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제 글을 읽고 좋은 평가를 해주신 심사위원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다양한 책을 꾸준히 읽으며 더 넓은 시야와 깊은 생각을 쌓아가고 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정은, 디디의 우산을 읽고
— 폭력의 비를 기억하는 방식, 연대의 우산을 펼치다

며칠 전 학교 도서관 게시판에서 ‘정독상 원고 모집’ 공지를 보았다. 지정 도서 목록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제목과 첫 문장만 훑어도 대략의 분위기가 감지되는 책들이 많았지만, 내 손을 붙잡은 건 황정은의 디디의 우산이었다. ‘우산’이라는 평범한 사물과 ‘디디’라는 낯선 이름의 조합은, 누군가의 비를 함께 맞아주겠다는 조용한 약속처럼 느껴졌다. “왜 그의(혹은 그녀의) 우산일까? 우산은 무엇을, 누구를 덮는가?” 그 호기심 하나가 선택의 시작이었고, 책을 덮었을 때 나는 처음의 질문보다 훨씬 큰 물음 앞에 서 있었다. 폭력이 스며든 시대에서, 우리는 어떻게 인간으로 남을 것인가.

디디의 우산은 중편 <d>와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다>로 이루어진 소설집이다. 두 작품은 직접 연결되진 않지만, 상실·기억·연대라는 공통의 축을 공유한다. 작가는 사건을 과장하거나 선동하지 않고, 절제된 서술과 여백의 미학으로 독자 스스로 감정을 채우게 만든다. 정독상 응모를 위한 독서였지만, 결과적으로는 내 삶의 자세를 바꾸는 독서가 되었다.

<d> — “비는 멈추지 않는다”

<d>는 이미 세상에 부재한 ‘dd’를 중심에 두고, 남겨진 화자의 시점으로 전개된다. 이 작품에는 흔히 이야기의 긴장을 끌어올리는 사건이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사소한 사물의 잔상과 감각의 조각들이 서사의 전부를 이룬다. 젖은 신발, 녹녹한 계단, 물방울이 맺힌 창, 비 냄새로 젖은 공기 이 모든 일상의 파편이 dd의 부재를 대신한다. 화자는 사건을 설명하지 않는다. 설명 대신 ‘느낌’을 남긴다. 그 느낌은 무겁고 축축하다. 그것이 바로 상실의 질감이다.

작품 속에는 끊임없이 비가 내린다. 그 비는 단순한 날씨가 아니라, 집단적 비극과 그것을 둘러싼 사회의 무력감을 상징한다. 작가는 “세월호”라는 단어를 한 번도 언급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 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다. 끊임없이 내리는 빗소리는 잊을 수 없는 사건의 메아리이며, 동시에 잊으려는 세상에 대한 저항의 소리이기도 하다.

나는 이 장면들을 읽으며, 비를 피하지 않고 일부러 맞는 화자의 모습이 오랫동안 잊히지 않았다. 화자는 우산을 쓰지 않는다. 그는 젖는다. 그것은 단순한 무기력의 표현이 아니라 기억을 지키기 위한 윤리적 선택이다. ‘나는 비를 피하지 않겠다’는 그의 결심은 곧 ‘나는 그날의 아픔을 잊지 않겠다’

다’는 다짐과 같다. 젖는다는 것은 불편하고, 고통스럽다. 그러나 그 고통을 감수하지 않으면 기억은 쉽게 씻겨 내려간다. 화자는 젖음을 통해 망각을 거부한다. 이 장면에서 나는 묘한 울림을 느꼈다. 진정한 애도는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끝내지 않으려는 마음의 자세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시간 또한 이 작품 속에서는 직선으로 흐르지 않는다. 과거와 현재는 서로 엉켜 있고, 기억은 불현듯 찾아왔다가 사라진다. dd의 죽음 이후 시간은 흘러가지만, 화자의 내면 속에서는 언제나 그날의 비가 내리고 있다. 작가는 이 뒤섞인 시간의 구조를 통해, 상실이 결코 과거에 머물 수 없는 감정임을 보여준다. 상실은 늘 현재형으로 존재한다. 나는 이 지점이 특히 인상 깊었다. 우리는 흔히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라고 말하지만, 화자에게 시간은 상처를 아물게 하는 약이 아니라, 상처를 반복해 되살리는 파도에 가깝다.

이 작품의 아름다움은 바로 그 반복되는 기억의 리듬에 있다. 화자는 dd의 웃음소리, 목소리의 높낮이, 손버릇 같은 사소한 부분들을 조심스럽게 복원한다. 그것은 불완전한 복원이다. 그는 결코 dd를 완전히 재현할 수 없다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계속 떠올린다. 그 과정이 곧 애도이고, 애도가 곧 삶이다. dd는 특별한 영웅이 아니다. 그저 평범한 누군가였다. 그러나 그 평범함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것이었음을, 화자는 뒤늦게 깨닫는다. 그래서 그의 상실은 비극이 아니라 삶의 진실을 직면하게 하는 통로가 된다. 우리가 잃은 것은 ‘특별함’이 아니라, 아무렇지 않게 이어지던 일상의 온도였다. 나는 이 대목을 읽으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상을 무심히 흘려보내는지를 돌아보게 되었다.

<d> 속의 비, 계단, 창문은 각각 감정의 매개체로 작용한다. 비는 무력감과 죄책감을, 계단은 반복되는 오르내림 속에서 애도의 정체 상태를 상징한다. 그리고 창문은 안과 밖, 살아남은 자와 떠난 자의 경계를 나타낸다. 창문에 맺힌 물방울은 경계를 흐리게 하면서도 동시에 연결한다. 나는 이 장면에서, 화자가 창문 너머를 바라보며 멈추는 순간을 오래 떠올렸다. 세상은 계속 흐르지만, 그는 잠시 멈춘다. 그 멈춤 속에서 그는 dd를 기억하고, 그 기억 속에서 비로소 다시 걸을 힘을 얻는다.

결국 이 작품에서 비는 끝나지 않는다. 비는 애도의 형태이자, 연대의 방식이다. 화자는 젖은 채로 걷고, 그 젖은 발걸음은 또 다른 누군가의 기억으로 이어진다. 나는 그 장면을 읽으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dd’를 하나씩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지도 모른다. 각자의 삶에는 비

가 내리고, 그 비 속에서 잊지 않기 위해 우산을 들지 않는 순간이 있다. 디디의 우산은 바로 그 기억의 윤리, 잊지 않으려는 용기, 고통을 감수함으로써 인간으로 남는 방식을 보여주는 작품이었다.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다〉 — 구조적 폭력과 침묵의 존엄

두 번째 중편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다〉는 앞선 작품 〈d〉와는 또 다른 형태의 폭력을 다룬다.

〈d〉가 죽음을 통해 상실의 윤리를 말한다면, 이 작품은 살아 있는 이들의 침묵 속에서 존엄을 지키는 방법을 보여준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한 여성 노동자가 있다. 그녀는 화려하지 않은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틴다.

계약은 늘 불안정하고, 일터의 공기는 차갑고, 사람들의 시선은 무심하다. 그녀는 시끄럽게 항의하지 않는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킨다. 하지만 그 조용함 때문에 오히려 세상은 그녀를 보이지 않는 사람으로 만든다.

작가는 이 ‘보이지 않음’을 단순한 개인의 문제로 그리지 않는다. 그것은 사회의 구조가 만들어낸 폭력이다. ‘폭력’이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손찌검이나 언성을 떠올리지만, 이 소설이 보여주는 폭력은 무시와 배제, 그리고 무관심의 형태로 스며든 일상적 폭력이다. 직장에서의 위계, 계약직이라는 신분, “고객을 먼저 생각하라”는 말 속의 억압, 그리고 가난이 만들어내는 끝없는 자기검열이 그녀를 옥죄어 간다.

친절한 말 속에서도 실질적 책임은 떠넘겨지고, 제도는 보호보다는 통제를 택한다. 이런 환경 속에서 그녀는 결국 ‘말하지 않음’을 선택한다. 그러나 그 침묵은 단순한 체념이 아니다. 그녀의 침묵에는 거짓의 언어를 거부하고 스스로의 내면을 지키려는 결의가 담겨 있다.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다”는 문장은 포기가 아니라, 타인의 언어가 아닌 자기만의 언어로 침묵을 말하는 선언이다.

이 작품의 인상적인 점은 ‘몸’에 대한 묘사다. 작가는 인물의 감정보다 육체의 피로를 더 세밀하게 기록한다. 아침마다 부은 발, 오후에 무겁게 눌러 붙는 어깨, 퇴근길의 무릎 통증 그 모든 디테일은 숫자나 보고서로는 결코 전달되지 않는 현실의 무게다. 폭력은 이렇듯 피로와 반복의 형태로 작동한다.

그녀의 몸이 닳아갈수록 세상은 더 효율적으로 굴러간다. 그러나 효율이라는 이름 아래 지워지는 것은 언제나 사람이다.

나는 이 대목을 읽으며 우리 사회가 얼마나 쉽게 ‘정상’이라는 이름으로 타인의 고통을 무시하는지를 실감했다. 폭력은 멀리 있지 않다. 그것은 바로

익숙함 속에 숨어 있다. 그래서 더 무섭고, 그래서 더 감지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품은 완전한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다. 작가는 침묵 속에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흐르는 작고 따뜻한 연대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쉬는 시간에 종이컵을 건네는 손, 빗방울을 쓸어내는 동료의 어깨, 퇴근길 버스 창에 비친 서로의 얼굴이 모든 미세한 순간들이 말보다 강한 언어가 된다. 그녀는 말하지 않지만, 그 눈빛과 몸짓은 분명히 말한다.

“나는 너를 알고 있다. 너도 나를 안다.” 이 인식의 교환이 바로 연대의 시작이다. 작가는 설명하지 않는다. 단지 독자로 하여금 그 장면을 ‘보게’ 할 뿐이다. 그리고 그 ‘봄(seeing)’ 속에서 우리는 깨닫는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서로를 알아볼 수 있는 세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나는 이 소설을 읽으며 침묵의 무게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종종 비겁함으로 여겨지지만, 때로는 말할 수 없는 현실에서 존엄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선택이기도 하다. 그녀의 침묵은 외로움의 표식이 아니라, 스스로를 부정당하지 않기 위한 방어적 언어였다. 이 장면에서 나는 한동안 책을 덮지 못했다. 그녀의 침묵이 내 안에도 있었기 때문이다. 나 또한 어떤 순간에는 말하지 못했고, 때로는 말할 필요가 없는 관계 속에서 오히려 더 깊이 연결되었던 기억이 있었다. 작가는 그런 인간의 본질적 감각을 놓치지 않는다.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결국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존재를 드러내는 이야기다. 침묵은 더 이상 부정의 상징이 아니라, 존엄의 언어로 재탄생한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녀의 존재를 명확히 느낀다. 그 존재감이야말로 작가가 독자에게 건네는 진짜 메시지다. 사람은 보이지 않아도 존재한다. 그 존재를 기억하고 알아보는 일이 바로 연대의 시작이며, 그것이야말로 황정은이 이 작품을 통해 말하고자 한 인간의 윤리다.

책을 덮은 후에도 나는 그녀의 침묵을 오래 떠올렸다. 그 침묵은 공허하지 않았다. 오히려 조용하고 단단했다. 그녀의 무표정 속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었다. 그 이야기를 읽어내는 일, 바로 그것이 독자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면, 이 세상은 아직 완전히 어둡지 않다. 그녀의 침묵은 끝이 아니라 희망의 다른 형태였다.

〈두 작품을 잇는 다리〉

<d>의 ‘비’와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다>의 ‘침묵’은 서로 닮아 있다. 두 작품 모두 폭력과 상실 앞에서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저항을 보여준다. 비를 피하지 않고 그대로 맞는 일, 거짓의 언어를 입에 담지 않는 일 이처럼 작고 단단한 태도들이 인간다움의 마지막 경계가 된다. 황정은은 거대한 영웅의 서사를 쓰지 않는다. 대신, 하루를 묵묵히 견디는 사람들의 작은 움직임 속에서 일상의 윤리를 포착한다. 그 윤리는 화려하지 않지만, 조용히 세상을 지탱한다. 작가는 우리에게 묻는다. “나는 오늘 누구의 우산이 되어줄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작품을 넘어 현실 속 우리에게 닿는다.

작품 전반을 지탱하는 중심 상징은 ‘우산’과 ‘비’, 그리고 ‘창과 이름’이다. 우산은 완벽한 방패가 아니다. 바람에 젖고, 때로는 뒤집히지만, 그럼에도 누군가의 곁에 서게 해준다. 그것이 바로 연대의 본질이다. 연대란 완전하지 않아도 함께할 가능하게 하는 일, 불완전함 속에서도 서로를 지탱하는 약속이다. 비는 그런 연대의 배경이자, 사회적 폭력의 흔적이다. 멈추지 않는 비는 세상의 불의와 슬픔을 상징하지만, 동시에 멈추지 않는 기억의 리듬이기도 하다. 애도는 사건이 끝나면 멈추는 행위가 아니라, 살아 있는 이들이 매일 반복하며 수행해야 할 삶의 태도임을 작가는 말한다.

‘창’은 또 다른 중요한 기호다. 그것은 안과 밖, 살아남은 자와 떠난 자, 침묵하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의 경계를 드러낸다. 동시에 그 경계를 투명하게 만들어 우리를 증인으로 세운다. 화자가 창문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듯, 독자 또한 작품을 통해 사회를 응시하게 된다. 우리는 더 이상 관객이 아니라 목격자가 된다. 마지막으로 ‘이름’, 특히 ‘dd’라는 이름은 소설 전체를 잇는 정서적 축이다. 그 이름은 구체적 인물의 정체성을 흐리게 하지만, 오히려 그 모호함 덕분에 더 많은 얼굴을 담아낸다. ‘dd’는 특정한 한 사람이 아니라, 잊혀진 모든 존재들의 이름이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람들의 상징이다.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행위는 그를 다시 세상 속으로 불러내는 일이다. 작가는 그 행위를 통해 기억의 실천이 곧 인간의 윤리임을 보여준다.

이렇듯 디디의 우산은 두 개의 이야기이지만, 결국 하나의 목소리로 귀결된다. 그것은 “기억하라, 그리고 함께 서라”는 조용한 외침이다. 비와 우산, 침묵과 창, 이름과 연대가 얽혀 만들어내는 세계 속에서 우리는 인간다움을 잃지 않는 법을 배운다. 그리고 그 배움은 단순한 감상이 아니라, 살아가는 자세가 된다.

처음에는 단순히 ‘정독상’ 이라는 목표가 나를 책 앞으로 데려왔다. 도서관이 ‘정독(精讀)’ 을 강조한 이유를 이제는 이해한다. 빠르게 읽고 지나가는 독서로는 결코 포착할 수 없는 감정의 결이 있다. 정독은 느낌의 미학이자, 사유의 출발점이다. 문장을 따라가며 천천히 멈추고, 여백에서 의미를 찾는 동안, 나는 작가가 남긴 질문에 스스로 답해야 했다.

디디의 우산은 내게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남겼다. 그리고 그 질문은 단지 책 속에서 멈추지 않고, 삶으로 옮겨가야 할 실천의 과제로 이어졌다.

이 책을 읽은 이후 나는 작은 다짐들을 세웠다.

먼저, 기억의 실천이다. 학교 기록물 동아리에서 ‘기억 아카이브’ 코너를 만들어 사라지기 쉬운 일상의 목소리를 기록하고 싶다. 잊히는 이름들을 남기는 일은 곧 작은 우산을 접지 않는 일이다.

두 번째는 침묵의 경청이다. 말이 서툰 친구의 침묵을 해석하려 들지 않고, 그저 곁에 머무는 것. 말보다 자리를 내어주는 일이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이제 안다.

세 번째는 연대의 장치를 만드는 것이다. 학급 게시판에 ‘비 오는 날 자리’ 라는 코너를 만들어, 오늘 누가 비를 맞고 있는지 적을 수 있는 작은 쪽지 벽을 세워보고 싶다. 누군가의 사정을 단 한 사람이라도 알아봐 주는 순간, 그가 혼자 맞는 비의 양은 분명 줄어들 것이다.

마지막은 언어의 선택이다. 농담으로 포장된 혐오, 습관처럼 내뿜는 경멸의 표현을 의식적으로 멈춰 세우는 것. 결국 사람의 마음을 덮는 가장 큰 우산은 따뜻한 언어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 언어를 지키는 일을 나의 책임으로 삼기로 했다.

이 모든 결심의 밑바탕에는 디디의 우산이 던진 문학적 메시지가 있다.

책을 다 읽은 후, 창밖의 비 소리가 예전과 다르게 들렸다. 그 비는 이제 단지 슬픔의 은유가 아니라 기억을 작동시키는 초대장이었다.

<d> 의 화자처럼 나는 잊지 않으려 하고,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다> 의 주인공처럼 말이 없어도 사람을 이해하려 한다. 황정은이 보여준 문학의 힘은 거창한 변화를 약속하지 않는다. 그것은 다만 비를 맞는 누군가의 곁에서 우산을 들어 올리는 일, 그 조용하고 사소한 행동 하나다. 그러나 나는 믿는다. 세상을 바꾸는 일은 언제나 그 작은 행동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비는 아마도 쉽게 멈추지 않을 것이다. 세상에는 여전히 폭력과 차별, 잊힘이 존재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고, 때맞춰 우산을 건네며, 누군가의 비를 함께 맞아준다면 그것만으로도 세상은 이전보다 조금

더 따뜻해질 것이다. 디디의 우산은 나에게 문학이란 결국 누군가의 젖은 어깨 위에 조용히 드리우는 우산 한 장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나는 오늘도, 그 우산을 든 사람으로 남고 싶다.



HUFSLIB



한국외대도서관